朝鮮日報 夕刊 (土)一日

伊、地中海中部에서 海軍大演習擧行

聯盟의對伊制裁와스에즈運河의閉鎖될境遇想定코潛水艦作戰에主力

軍首腦部會議서決定

【羅馬三十日發】 못솔리니 伊首相은 二十八日 全員閣議後 다시 軍首腦部會議를 開하야 幾多의 重要軍事會議를 거듭하엿는데 그結果 시실리島附近의 地中海中部에서 潛水艦隊를 中心으로한 海軍大演習을 開催하기로되여 그때문에 제노아 나폴리 베니스等 各港으로부터 總數約七十의 潛水艦을 시실리島로 集中하기爲하야 命令을 發하엿는데 諸艦은水上部隊와 連絡하면서 一齊히 同方面으로 向한다고 確聞한다 演習區域은 北은 타란트灣으로부터 시실리島、南은 北阿弗利加의 伊領에리아沿岸、東은 希臘西岸으로부터 西는 佛領튜니스에 至하기까지의 海面이라고 觀測되는데 萬若國際聯盟이 對伊制裁를 取하야 스에즈運河가 閉鎖될 境遇에는 伊太利와 阿洲北岸과를 連繫하고 또地中海東西兩部의 交通을 遮斷하기 爲하야 戰略上 當然潛水艦戰에 依하야 閉鎖하지 안흐면 안되리라고 認定되는 場所인데 마치 이海面中央部에 잇는 말타島(英國領)를中心으로 英國地中海艦隊가 活潑한 行動準備를 進捗하고잇는此際 伊太利潛水艦隊及 이에呼應하는水上部隊의 大運動은 伊에紛爭危機에 際하야의 가장緊張된 場面을 地中海上에 出現하리라고 注目되다 그리고 伊太利軍當局은 따로 空軍에도 命令을 下하야 多數飛行機를 시실리島沿岸要港部에 集中待機를 命하엿다한다 이리하야 海軍演習의 名目下에 伊太利의 戰鬪姿勢는 海陸이 모도整備되엿다고 觀測할수잇다고 한다

【羅馬三十日發聯合】 伊太利政府는 陸軍大演習에 뒤이여 地中海에잇서 海空聯合의 大演習을 擧行하기로 決定하고 이미 潛水艦六十隻은 三十日 시실리島南岸에 集結하엿다는 報道가 자못 流布되고잇다 伊太利政府에서는國軍의 行動에 關한 報道를 一切停止하고 今回의 演習에 對하야 否定도 肯定도안함으로 眞相은一切判明되지안흐나 陸海空三軍各部隊는 待機狀態에 잇다 一旦有事時는 命令一下에 直時 出動할수잇게 準備가 整齊되엿슴은事實이다

英地中海艦隊 「스에즈」出動命令

【倫敦三十日發聯合】 英國政府는 聯盟理事會의 開會를 압두고 三十日 地中海艦隊에 對하야 스에즈運河地帶로 出動을 命令하엿는데 旗艦퀸엘리자베스號以下第一戰鬪戰隊 第一第三巡洋戰隊의 精銳 十數隻은 根據地를 出發하야 目的地로 向하엿다 消息通의 報道에 依하면 九月二日까지에 集結을 完了하고 伊太利政府의 軍事行動을 監視하리라고 觀測되다 一方巨艦로드네이號 넬손號以下의 本國艦隊는 秋期大演習計劃을 一週間다그어는 이미待機狀態에 드러가잇다

伊太利航空將校 三十日上海發歸還

【電通上海三十日發】 伊에兩國間의 戰機切迫과함께 못솔리니首相으로부터 召還命令을 바든國民政府航空委員會 伊太利人顧問團將軍은 이미 西伯利經由로 歸國의 途에 올랏는데 今回그後任으로 伊太利航空大尉 비오살두니氏가 航空委員會最高顧問에 招聘되엿다 同氏는 못솔리니首相으로부터 蔣介石氏에게 寄贈된 사보이아號를 操縱하고來中하야 目下 南昌에 잇다 그리고 돌시將軍外에 伊太利大使館附武官 도라제大尉 伊太利極東航空司令官 가리보大佐도 亦是 歸還命令에 接하야 三十日巡洋艦렐드號로 當地로부터 急遽歸國의 途에 올랏다

交戰外國의軍務就役禁止 英外務省서布告

에디오피아援助熱勃興에注意喚起

對伊和平處理一端乎

【電通倫敦卅日發】 英國外務省에서는 伊에 紛爭地에 近接한埃及 케니아 南阿聯邦等 英領諸地方에잇서 에디오피아 援助熱이 勃興하야 에디오피아에의 從軍志願을 志望하는者가 續出하야 英國本國에까지 그러한 傾向이 잇게되엇는데 鑑하야 此等個人行動이 不測의 事件을 이르켜 英國政府의 方針을 妨害할 憂慮가잇슴을 알게된 結果 三十日 左와 如한 布告를 發하야 英帝國民의 注意를 喚起하엿다 英國臣民은 英國國王陛下가和平關係를 保持하고잇는 外國에 向하야 交戰하고잇는 如何한外國을 爲하여서나 勅許를 仰하지안코 陸海軍의 軍務에 就役하거나 又는 干與하기를 受諾或은 受諾을 約하기를 敢行할時에는 狂罪者로 認定할것이다 右는 一八七〇年 外國兵役應募禁止令에 明示된바이다 그 責任은 바야흐로 英國臣民 又는 英國의保護를 밧는國民中에 伊에間의 軍事行動勃發을 豫想하고 兩國中 어느一國에 從軍하려고 企圖하는者에 對하야 玆에 미리 正確한理解를 要求하는바이다 그리고 右禁止令을犯하는者는 二個年以內의 禁錮 五百磅以下의 罰金의一方 又는兩方을科한다

【電通倫敦三十日發】 英國外務省의 이 英人의 에디오피아從軍禁止의 注意書를 三十日 發表한것은 聯盟理事會의 九月四日開會를 압두고 英國이 아직까지도 어데까지 伊太利와의 友誼를保存하려는 態度를 取하고잇다는것을 示하야 伊太利의 誠意잇는 理事會參加에 依하야 伊에紛爭의 和平的處理를 期하려하는意向이라는것을 暗示하는 一種의 제스추어라고 解釋되는데 同時에 在英第三國外交關係側에서는 右聲明에 依하야 英國이 如何히 軍事行動에 휩쓸녀드러가는데 細心한注意를 拂하고잇는가를 判斷할수잇다하고 所謂英國의硬化라는 그眞相의 一端을 正直히 말하는 事實이라고하고잇다

伊太利極東艦隊 司令官도急遽히歸還

【上海三十一日發聯合】 伊太利의 中國駐在航空武官數名은 本國의 招電으로 急遽 西伯利亞를 經由하야 歸國途上에 올랏는데 다시 伊太利 極東艦隊의크리본스司令官은 本國으로부터 急電을 接하고 巡洋艦쿠오르號로 急遽베니스로 歸航하는途上에올낫다

駐에英佛希公使館 商人撤退阻止

【아디스아베바三十日發聯合】 에디오피아在留各國商人은 開戰을 豫想하고 벌서부터 撤回를 開始하엿는데 아디스아베바駐箚英佛兩國及 希臘公使館은各其自國民에 對하야 疑念이 必要업다는것을 確言하고 또 伊太利軍이 侵略할 危險이잇슬境遇에는 적어도 二週間前에 警告를 發할것으로 約定하엿슴으로 極力商人의 撤回를 阻止하기에 努力하고잇다 特히 佛國公使館은 特히 英佛伊三國條約에 規定을 援用하야 伊太利政府는 英佛兩國政府의 承諾이업시 戰端을 開始할수업는 所以를 言明하엿다고解釋되다

에디오피아戰線

伊太利의 大動員에對抗하야 에디오피아의 對抗準備는、肉彈과 血戰의 覺悟와함께 더욱猛烈한바잇다 寫眞上은 陸軍練習을 撮影하시는 에國第三皇子、寫眞下는 佛領디부치를 經由하야、에國首都 아디스아베바로 向하는 軍需品 滿載의 列車의 一部

蔣氏의抑留說은 全然事實無根

◇來滬한汪精衛氏談

【上海三十日發聯合】 汪精衛氏는 身病診察次로 三十日에 來滬하엿는데 四川에잇서 蔣介石氏의 抑留說에 對하야 汪氏는 左와 如한 談話를 發表하야 斷乎히 右議言을 否定하엿다

昨二十九日午後二時四十分 成都에서 發한 蔣介石氏의 親電을 午後三時四十分에 接受하엿다 蔣介石氏는 健全하고 援勵하야 四川討共에 盡力하고잇슴으로 抑留說은 全然事實無根이다

北部로부터攻略 伊征에軍의作戰大要

【아디스아베바三十日發聯合】 에디오피아軍首腦部는 雨氣가갓나기前에 土民諜報機關을 動員하야 伊太利軍의 作戰計劃에 關하야 情報를 蒐集하고잇는데 最近確實한情報를 綜合하면 伊太利政府는 먼저國境을 突破하고 北部地方을攻略하야 一齊히 아디스아베바以北地帶를 席捲할計畫이라고하는바 伊太利軍의 作戰大要는 左와如하다

▲北部戰線

一、에리트리아軍右翼部隊는 수단國境을沿하야 南端으로부터 國境을突破하고 一擧南下하야 스와나湖畔의 곤달을 陷落하고 나일流域地帶를 占領

一、에리트리아中央軍은 아디스카이유로부터 아데크라트 아도와를 攻略하야 南下 各軍과併行하야 右翼

一、左翼部隊는 前二軍에比하야 數爻가적으나 沙漠地帶를避하야 佛領소마릴란드國境線을沿하야 아사브地方으로부터 國境線을 突破하고 南下하야 하레레 쿠포를 陷落한後 하레레 쿠포에잇서 後續部隊와合流하야 第二段의作戰으로 올마 하와시河溪谷을 沿하야 西進 國都아디스아베바로 直進

▲소마릴란드軍

一、소마릴란드軍左翼은 유바 웨베시베리 兩河中間의 이시야 바이드아地方에 集中하야 北進하야 머다가를 攻略

一、右翼은 갈카유에 本據를두고 가라시 월월을 經由하야 다가부를攻略

防衛作戰 「에디오피아」軍의 三十五萬大軍으로

【아디스아베바三十日發聯合】 에디오피아軍作戰本部는 敵軍集團이 北方에리트리아로부터 南下하려는情勢에 鑑하야 소말릴란드北方國境의 防衛에當하게되엿는데 約三十五萬의 大軍을 아도와아카로線에 配置하는同時에 戰線一帶에 防塞 石壘等을構築하고 戰軍을防衛하기 爲하야 險要한 地點에 敵軍의 進出을 防禦하려하나 소말릴란드國境方面의 防衛는 北方에 比하야 薄弱하나 이方面으로부터 伊太利軍이 進擊할 境遇에는 에서 攻擊하라고 觀測되는데 오가덴地方에 十八個의 要塞를構築하엿고 伊太利領 소말릴란드國境의 駐屯兵을 增員하고 더욱 伊太利軍의 侵略에 備하야 브스、키지카드南地點에잇서 兵力을 엇지하야 伊太利軍을 包圍하고 바리-의 線으로 邀擊할作戰計劃을 세우고잇다 開戰을압두고 各軍의士氣는 자못 旺盛한 오行動을 ... 어作戰本部를 자못 곤란케하고잇는現狀이다 英佛方面의 觀測에 依하면 全軍이 一齊히 進擊을 開始하면 頑强하게 五日間이나 消耗하리인바 거의 全軍隊의 三十萬이 에디오피아政府로서는 必要한 ... 侵入하기는 事實上 不可能하다고解釋된다 結局에 戰場의 境遇에잇서서 伊太利軍을 에디오피아國內로 誘入하야 山岳地帶의 迷路에서 激擊할 危救作戰을 取할수밧게 업스리라고 觀測된다

伊國에衝動

英米에利權讓渡問題

旣定方針不變한다고

【羅馬三十日發聯合】 에디오피아皇帝가 國內經濟開發의 利權을 英米兩國財團에 附與하엿다는 報道는 靑天霹靂과如히 伊太利政府當局에 重大한衝動을 與하얏는데 政府側에서는 힘써서冷靜한 態度로 에디오피아皇帝가 十五萬平方哩의 領域에 亘한 開發權을 英米兩國財團에 讓渡하엿다고는 到底히 밋을수업다 더구나 伊太利政府의 旣定軍事方針은 微動도안는다고 그推移에 深甚한注意를 하고잇다

「에디오피아」皇帝 對英特權賦與 伊進擊에먼저손써

【아디스아베바三十日發聯合】 에디오피아皇帝는 三十日에 伊太利軍의 進擊에 先손을써서 二十九日夜半 스탠다-드石油會社及 英國財團에對하야 自國領域의 大部分에 亘한經濟開發의 權益을 附與하얏다 伊太利에 에디오피아兩國間의紛爭은 에디오피아皇帝今回의 英斷으로 다시 重大轉回를 示할것으로 보이다

蔣大使赴任 廣田外相과會見

【電通東京電話】 中國新任大使 蔣作賓氏는 三十一日午前六時半 엠프레스오브아시아號로 橫濱에 着港 中國大使館員等多數의 出迎裡에 直時 上陸 自動車로上東 大使館에 入하엿는데 二日 廣田外相과 會見하고 赴任인사를 마친後 蔣介石、汪精衛氏合作의 親日政策에 對하야 說明하고 日華親善의 具體化를 協議하기로되엿다

聯盟態度支持爲한 英最後的態度決定

이든無任所相聲明書携帶코巴里行

平和的解決强硬圖謀

【倫敦三十日發聯合】 聯盟理事會의 開會를 압두고 英國代表이든無任所相은 호어外相을 爲始하야 外務首腦部와 協議하고 理事會에 提出할聲明書의 起草를 急히하고잇는데 三十一日에 巴里로 마츰내 出發하엿는데 英國政府의 對策은 玆에 最終的으로 確立되엿다 이든無任所相은 右聲明書를 携帶하고 巴里에서 라발首相과 會見하고 다시 妥協을 遂할터이다 英國政府로서는 어데까지 聯盟의 原則維持를 主張하야 讓步치안흘터로 態度는 强硬하다고 解釋되며 理事會에잇서 英國政府의 方針을 要約하면 左와如하다

一、못솔리니首相은 롬차노에잇서 閣議를開催한結果 特히 英國의權益을 維持한다는 旨를 聲明하엿는데 右聲明은 伊太利政府의 態度에 조곰도 變化를招來치못하엿다

一、聯盟의 原則及 國際條約에 基하야 伊太利政府의 義務는 極히 明瞭하야 疑問할餘地가 업다 英國政府로서는 此等義務를 履行할것을 期待하고 理事會에서 어데까지 聯盟의原則實行을 要求함

一、理事會에서는 單純히 和協 仲裁手續의 經過를 報告하는데 끗치지안코 右手續의 一切原因에 對하야도 充分檢討를 加하야 責任所在를 闡明치안흐면안된다

一、에디오피아國을 聯盟으로부터 除名하는데 英國政府는 同意할수업다 英佛兩國代表는 巴里에서 一九〇六年十二月의 條約에 基하야 和協試案을 提示하엿는데 伊太利政府로서 容認할수잇는것이며 理事會에서 右試案에 基하야 거듭平和的解決策을 講究함을 要함

共産部隊二方에서 甘肅目標로殺到

同省에廣大한싸베-트區域建設乎

朱毛、徐海東軍遂合流

【上海發電】 最近中國共産軍의動向을보면 그들은 甘肅에 大싸베-트의 建設을意圖하야 甘肅에 모여들고잇는 模樣인데 朱毛의 基本部隊 徐向前의 川陝部隊 徐海東의 陝晉部隊 劉志丹의 陝北部隊等은 모도 今月初旬부터 甘肅으로向하야 大移動을 開始하고잇는것이 明白하게되엿다 卽各軍의 現狀을보면 左와如하다

朱毛軍及 徐向前의 合流部隊는 七月二十日頃부터 川北地區로부터 다시甘肅으로 向하야 北進을 開始하야 先頭部隊는 이미 八月十五日 甘肅西固에서 徐海東의 先頭部隊와 完全히連絡되엿다 主力部隊는 依然 松潘을中心으로한 川北地區에잇는데 不遠에 全部甘肅으로進入하리라고 觀測되다 이에對하야 討伐軍은 成都 平原을 防守키 爲하야 北은 松潘의 東方地區에 胡宗南軍 第五路軍 茂縣을 中心으로 第六路軍 汶川에第三路軍 其西方에 第一路軍 川南으로부터 西康丹巴에 亘하야 西康軍과 弓狀陣形을 取하고잇다

徐海東軍은 七月二十日頃 西安西方의 盩厔를占領하고 다시 八月五日頃 甘肅의 東南兩當에達하야 十日頃에 夫水附近에入하야 西固에서 上記한바와 如히 朱毛 徐向前軍과 連絡하엿다

劉志丹의 共産軍은 陝西北部로부터 八月十日頃에 南進을開始하야 甘肅을向하고 移動을開始하엿다

以上과가티 四共軍은 모다甘肅을向하고 殺到하고잇는데 이것이實現되면 討共은 一層困難하게되고 또 新疆과의 連絡도 됨으로 西北邊境의 赤化는 今後重大化하리라고 觀測된다

總督府豫算折衝 前途難局豫想

調整問題를中心으로

總督府明年度豫算編成은 財務局의 손을떠나서 舞台는 大藏省으로 옴겨갓는데 大藏省은 一般會計의 窮乏財政을 緩和할 手段으로 比較的好調에잇는 特別會計에 着目하야 兩者의 調整을 强調하고 朝鮮總督府特別會計에 對해서는 減債基金의 金額繰入과 補充金半減을 强制할意向이라고 傳하야 總督府當局을 不少하게 刺戟하고잇다 總督府로서는 國家財政의 全局으로보아 朝鮮財政이 許하는 最大限度의 犧牲을하야 大藏省當局의 方針에 應할 準備는잇스나 大藏省事務當局의 計算에依한 補充金、減債基金繰入增額을 合하야 一千萬圓가까운 巨額의 負擔은 現在의 朝鮮財政에 到底히 過重한 負擔이라 特히調整問題에 應할수업다고한다 補充金에 關해서는 統治上 자못 拙劣한 策이라 過般 宇垣總督이 渡東한 때에도 이點을 力說하야 中央當局과 諒解가된 問題로 지금새삼스리 大藏省當局이 이問題를 俎上에 올려놋치는 안흘것이라고 하고잇다 따라서 總督府가 一般會計와의 調整에 應할 手段으로는 相當히 苦心을 한 結果

一、減債基金의 繰入額은 從來百八十萬圓이 엇던것을 明年度부터 萬分의 百十六까지 增額하고 새로 三百十萬圓의 繰入增額을 行함

一、公債漸減方針에 則하야 明年度의 公債發行額을 十年度보다 百萬圓減額하야 二千三百萬圓에 止함

卽金額公債財源인 明年度의 鐵道建設改良豫定額 二千七百萬圓은 四百萬圓縮少의 犧牲을하야 이方針數字를 原則으로 大藏省과의 調整折衝을 行할 意向이다 그러나 大藏省의 調整問題에 對한 意向은 相當히 强硬하야 果然總督府의 豫定方針이 無修正으로 諒解를 어들수잇슬지 相當히 疑問이라하며 中央에서의 調整問題를 中心으로한 總督府의 豫算折衝은 未曾有의 難局에逢着할것으로 豫想되여 財務當局의 奮鬪가 期待되고잇다

八面鋒

◇傳染病患者 만키론 官吏家庭이 第一이오、銀行、會社員이 그다음이라고。

◇衛生觀念이 놉고 生活도 그리 窘窶치 안흔이에게 傳染病이 만흠은 一見 怪異。

◇그러나 그들은 點心을 밧게서 사먹고、해빗 안드는 뎅속에서 살고、사람과 接觸이 만흐니 病菌을 傳受할 機會도 만흘밧게。

◇殖産稅令을 둘러싸고 財務、殖産兩局이 싸움한다고。

◇財務局 管下의 金組理事를 殖産局 管下의 殖産稅의 監事로 맘대로 끌집어 씃다는 싸음。

◇監禁되엿다는 蔣氏의 消息 아즉까지 眞僞를 未判。

◇蜀따의 일이라 나는 새나 알아줄가。

◇伊、에戰爭은 決定的이라고、그리고 장은 三年을 가리라고。

◇衆寡에 勇者 그누구?

人事·集會

◆篠田李王職長官 渡東中이든바 九月一日 午後三時廿分 京城着歸任豫定

范中國總領事 九月初旬京城着

【南京三十一日發聯合】 京城駐在總領事 范漢生氏는 歸國後 南京中央部에 朝鮮最近의事情 特히 宇垣總督이 朝鮮統治上에 非常히 顯著한 業績을 擧하고잇는 實情을 詳細 報告한後 目下中鮮僑問題에 對하야도 意見을 具申하야 各方面에 奔走中이든바 汪精衛 外交部長의 辭職問題도 一段落을 지엿슴으로 二十四日 汪外交部長과 面會하고 新訓令을 바더가지고 二十五日南京發 歸任途에 올낫는바 來月初旬 京城到着할 豫定이다

察哈爾省主席 宋氏와協議 司令部組織에對하야

【天津三十日發聯合】 察哈爾省主席秦德純氏는 蕭振瀛氏同伴 三十日 天津發 宋哲元氏와 함께 司令部組織及 平津地方의 治安保障에對하야 協議하기로 決定하엿다 宋哲元氏는 軍事分會及政務整理委員會撤收後 北中에잇서 事實上支配者가되리라고 期待된다

드미트로프의演說에 正式으로警告

廣田外相近日中發送

【電通東京電話】 第七回콤인테른大會의 赤化工作演說에 對하야 米國을비롯하야 英國、伊太利等의諸國은 警告書를發하엿는데 日本도 大會內容을 詳細研究하야 廣田外相으로부터 駐蘇大使에게 警告를 發하려는데 卅日 大田大使로부터 外務省에達한 報告에 依하야 大會中 가장 注目되는 左의 報告演說內容이 判明되엿슴으로 廣田外相은 마츰내 近近正式警告를 發하기로되엿다

一、드미트로프가 行한 파쇼進出에 對한 勞動者階級의 統一戰線及 콤인테른의 任務에 關한 報告

二、엘코리니가 行한 帝國主義世界戰爭의 準備에 關한 報告

三、마니엘스키가 行한 蘇聯에잇서 社會主義及 共産主義의 傾向과 其世界的支持에 關한 報告等

等으로 其中가장重大한 意義를 갓는것은 드미트로프의演說로 그 內容은 大體左와如하다

勞働者는 社會民主黨其他 如何한團體에 屬하든가 共同戰線에參加식히되 境遇에依하야는 聯立政府에 參加식혀도無妨하다 또職業、組合運動을 統一하야 그團體에 加入하야 內部에서 此를崩壞케하고 或은 婦人團體의 結合을 圖하야 植民地 特히中國에 反帝國主義의戰線을 普及식히지안흐면안된다 戰線統一의 方法으로는

一、共産黨의分派打破

二、社會黨과부르조아階級의提携를 排除하고 勞働者로 하여금 프로레타리아트의 獨裁必要를 認케할것

等 三項目이다

祝 朝鮮예수敎長老會 第廿四回總會開會

朝鮮예수敎長老會 宣敎五十週年歷史畵譜

「조선기독교회를 아실여고하시면 이歷史畵譜를보시요」

朝鮮各敎會에올니는말슴

一九三四年은 朝鮮예수敎長老會 宣敎五十週年을 마지하든 해이다。 聖徒들의 가슴에는기쁨에 뛰놀고 敎會는 神의榮光과 그의 크신 能力을 讚揚하며 不信 大衆에게까지라도 祝意가 充溢하엿다。

이러한 榮光스러운 때를 當하야 「至極히 놉흔 곳에서는 하나님께 榮光을 돌리고 땅에서는 기쁨을 입은 사람들이 平安할지어다」(눅二·14)라는 聖句를 聯想하게되도다。

그리하야 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는 이를 祝賀記念하기 爲하야 第二十三回總會를 期하야 總會 開催地인 平壤에서 祝賀를 表하는 몃가지 特別會를 開催하게 되엿는데 祝賀禮拜 記念式擧行 祝賀旗行列 宣敎五十週年歷史展覽會等이엇다 이러한 歷史的 盛典을 擧行하게된것은 聖役 先輩 諸位의 흘린 땀과 드리운 피로써 그려내여서 남겨둔 燦然한 事實이다。

이 일을 一時的으로 한모통이에서 慶賀를 닷치고 만다는 것보다 좀더 넓이 世間에 公開하야 聖軍들의 凱旋한 遺蹟을 信者의 『家庭마다』『敎會마다』各 나라마다가 다 紀念保存케 하기 爲하야 이 歷史畵譜 刊行을 總會가 可決하야 本刊行委員會에 一任한바 左記內容을 가추와 發刊되엿아옵기 玆에仰告하나이다。

本歷史畵譜內容은 左記目次와 갓습니다마는 特別參考의말슴 몃마듸를 드립니다。

1、蒐集된材料는 想像에 지내지리만큼 豐富합니다。

2、本畵譜는 五十週年間生長한 朝鮮敎會를 그림으로 나타내여보인 까닭에 비록 글말은업을지라도 一目瞭然하게 다알수잇게 되엿습니다。

3、누구를勿論하고 自己의얼골과 自己의 族譜를 아라두어야할 絕對의必要를 늣기신분이라고하면 自己信仰生命의 總營인 朝鮮敎會를 그려낸 이 歷史畵譜를 보기실혀할 敎人은 一人도 업슬줄압니다。

4、寫眞마다 조선語、英語、漢文、三方言으로 說明을 붓치고 四六倍判으로 아-트紙(寫眞紙)에 鮮明하게 박힌(頁數二〇五)大冊이나 갑은 但 二圓이옵시다。(實費로提供하는것입니다。普通出版物例에依하야 定價를매긴다면 적어도 五圓以上입니다)

5、이歷史畵譜는 五十週年만에 처음되고 압흐로 百年까지는 마즈막도 될것갓습니다。이機會를 놋치지말으시고 信者의 家庭마다、敎會마다、꼭한책식 사두시면 千秋萬古에 寶鑑이될것입니다。

6、部數에 制限이 잇느니만콤 請求順序대로 發賣하고 絕版되면 비록請求는 하여슬지라도 責任을 지지안켓슴니다 (再版하기도어렵슴니다。)

7、各敎會에서는 禮拜時間에 敎會압헤 이畵譜內容을 說明廣告하야주시고 廣告를 붓지못하여서 사보지못하엿다는 遺憾이업도록 하여주심을敬要。

臨時發賣所는 來九月五日 新義州總會場入口로 定하엿사오며 各地方購覽申請도 可及的酬應하려고합니다。

一處敎會에서 二十冊以上을 注文하시는 敎會에는 送料를本會에서負擔하겟습니다

一、總序內容目次
二、朝鮮敎會創設基礎工作
三、朝鮮基督敎受難略史
四、初代敎會堂과現敎會堂의偉觀
五、宣敎師會古今關係
六、朝鮮예수敎長老會宣敎 二十五週年以上된 宣敎師六十六名 (無順)
七、醫療機關 (材料蒐集된것만)
八、總會組織沿革과現總會關係 (朝鮮예수敎長老會上會歷代職員錄)
九、長老會總會歷代任員錄과總會長의面影
十、朝鮮예수敎長老會平壤神學校古今槪要
十一、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中國宣敎에對한槪要
十二、各老會及任員과老會主催의特別集會
十三、朝鮮各老會設立會長의面影 (一九三四年九月現在各老會長面影)(材料蒐集된대로만)
十四、牧師聖職二十五週年以上勤續聖役者의面影 (無順)(材料蒐集된대로만)
十五、長老聖職二十五週年以上勤續聖役者의面影 (無順)(材料蒐集된대로만)
十六、朝鮮各老會傳道會와查經會(材料蒐集된대로만)
十七、全朝鮮主日學校大會槪要
十八、聖經學校及神學院(材料蒐集된것만)
十九、專門敎育機關과槪要
二十、中等敎育機關
廿一、基督敎文化運動과靑年運動關係
廿二、慈善機關(材料蒐集된것만)
廿三、說 寶 篇 (信義上連絡機關과其他團體)
廿四、總會主催禮年記念祝賀에關한目次
特別附錄 (五十週年間生長한長老敎會總敎勢統計表)

一九三五年八月二十三日

朝鮮예수敎長老會宣敎五十週年 歷史畵譜刊行委員會白

四六倍判二〇〇頁 아트紙 美麗衣裝 特價二圓

平壤府景昌里八三 販賣所 長老會神學校

對岸의各派武裝團 總勢十萬으로推算

宛然戰時狀態、冬節을念慮 大規模로警備準備

금번여름에 들어서 국경상도의 무장단 침입과 대안(對岸)사건이 빈발하야 특히평북가튼데는 매일이상건씩 공산군 반만군등의 습격(襲擊)가잇서 압록강과 두만강상 천리의 국경선에는 매일총소리가 끈칠때가업는 상태이라한다 그럼으로 경무국에서는 이모양대로가면 금번겨울의 국경선일대에 위협은 실로만주사변이후에 가장위험한정도가 심할것이라하야 그대책을 강구하고잇는터이다 그런데 일전고천(古川)평북경찰부장이 평북국경을시찰하엿슬때에는 전행정(全行程)십사일간에 총소리를드른것이 삼십여회에 인질랍거 물품략탈등의 포함한 사건만도 십오건이나 되는 상태로국경제일선은 마치 전시상태와가튼느김을 주고잇는 것이다 한남부대안인 부간도에는 주로 공산군이 산재하나 최근경비긔관의 충실과교통의 발달에따라 무장행동은 비교적 적어젓스나 동변도(東邊道)일대에는 경비의 부족과 변지의관계로 공산군반만군 조선인○○군기타 토병등이서로 련합하야 행동하고잇서그 수는대략 십만에 달하는 모양으로 결빙이후의 그들의 조선침입계획을 방지하려면 막대한 경비와 과학적 무긔를 필요케됨으로 평북경찰부에서는 경무국에 약오십만원의 림시올금경비비를요구하여가지고 각주재소에척탄통(擲彈筒)수류탄(手榴彈) 평사포(平射砲) 조명탄(照明彈) 등을 설비하고 항행하는 선바의강상 습격에 대하야는 장갑선(裝甲船)을 설비하야 방비할 계획 등을 세우고 잇다는바 이와가튼 방비 계획은 함남북 량도도 가튼계획을 갓고잇슴으로 금후 결빙긔를 지나명춘까지에 이르는 특별경비긔간에 약 백만원의 경비가 필요하다하는데 그중 일부는 일반의 긔부와 경찰협회 후원등의 출연을 어더 전긔의시설을할터로 이것이 실현되면 국경삼천리의 제일선경비는 공전의공고한 정비(整備)를 갓게될터이라한다

安奉線에土兵隊 貨物列車를襲擊

車掌負傷、軍警追擊中

【전통안동전화(電通安東電話)】안동발봉텐행제사백사십구호화물렬차는 삼십일오후열한시삼분에 탕산성고려문(湯山城高麗門)간에서 토병사십명의 습격을바다 긔관사의 긔민으로 위난을버서낫스나 그때후보차장천하일조(川下一助)씨는얼굴에 찰과상과 엇개에 맹관총상을 바닷다 방금군경이 추격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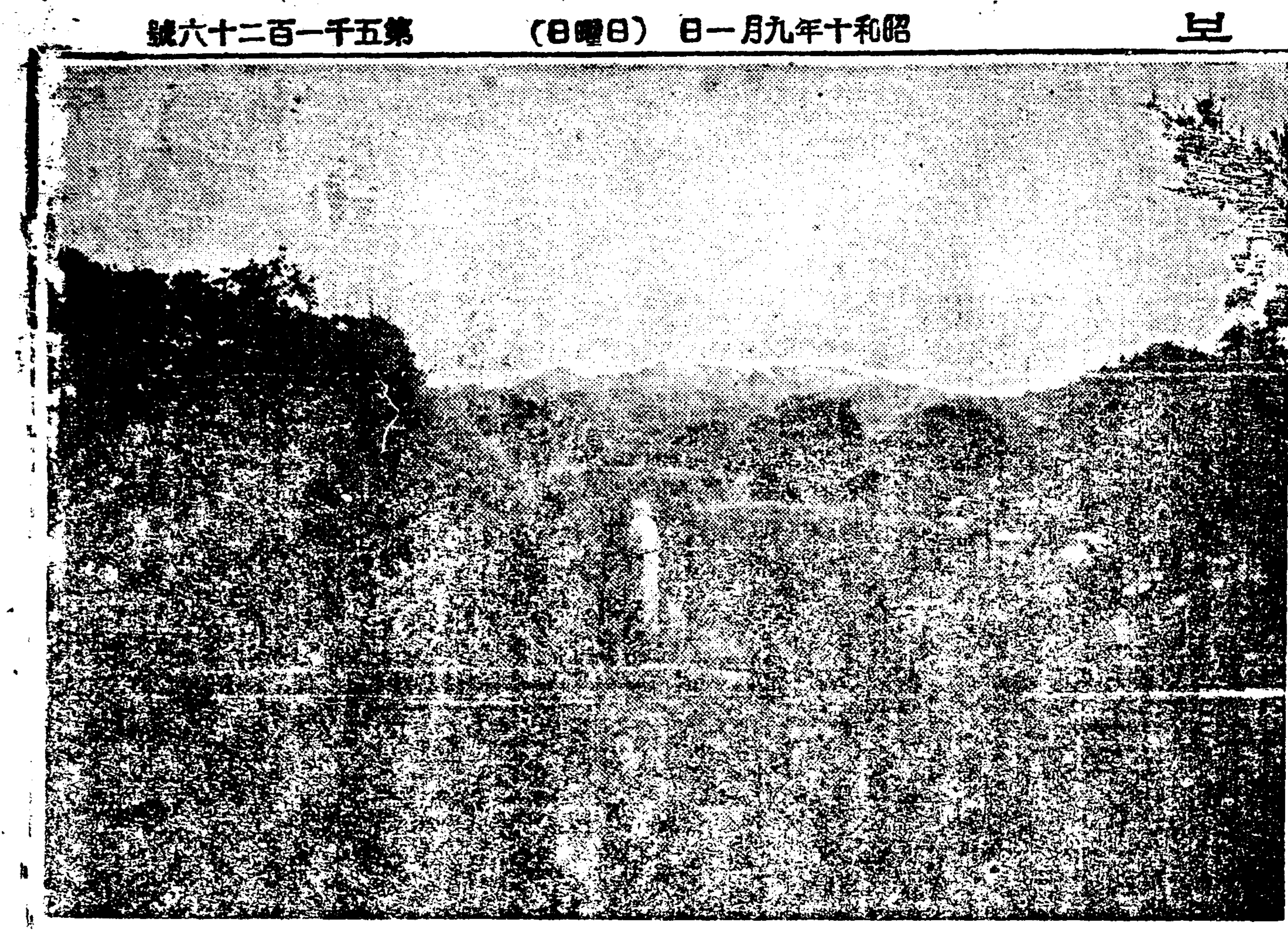
廣州古塚六基 百濟時代것인듯

警察署員이發見報告

경긔도 광주(廣州)군하에 백제(百濟)시대의 분묘(墳墓)가 발견되엿다는 고고학(考古學)상귀슬긋한 이야기가잇다 삼십일일 광주경찰서장으로 부터 경긔도 보안과에 보고한바에의하면 광주군서부면송호리(西部面松湖里) 산속에 일천수백여년을 경과하여보히는 분묘두개가 안치되여잇는 부근에 꺼여진개와쪽이허터저잇고 자연석(自然石)이 아닌 돌로 싸허올린 고총(古塚) 여섯개가 발견되엿는데 동군 동부면 교산리(東部面校山里)로부터 서부면 춘궁리까지 일으는 지방일대는 백제(百濟) 궁터(宮址)이엿다는것으로서 력사상 나타나는것을 전긔 분묘가 발굴된 장소는 춘궁리 백제궁지라는 탑(塔)이잇는곳에서 약 삼정가량되는곳이므로보아 백제시대의 분묘라는설이 그지방에 자자하다하므로 이것이 사실 백제시대의 분묘이면 고고학상 여간 중요한 재료가 되지안켓스므로 도보안과에서는 곳 학무국에 이첩하야 조사원을 파견케할터이라한다

德壽宮美術替

덕수궁석조전(德壽宮石造殿)의미술품 전람중의 일본화(日本畫)는삼십일일부터 밧구어 진렬하얏는데 신진렬품은 십오점이라 한다



◇……芒草만덥힌六臣墓……◇

李永春氏에 學位授與

文部省에서

【전통동경전화(電通東京電話)】요전경도(京都)에서 론문이통과되얏든 의사리영춘(李永春)씨는 삼십일정식으로 의학박사학위수여의 인가가 낫는데 씨는 일즉이『세부란스』의학전문을 마친 소장학구이며 이번에 학위를어든 론문은 생체(生體)에서의『니코친』작용의성(性)(홀몬)에 미치는 영향에관한 실험적 연구라는것이라한다

旱水害地救濟策 聯合協議會開催

關係局課에서善後策을討議 各地에調査員派遣

전라남북도의 한해(旱害)대책과 평북 강원도등지의 수해대책등 금년도의 재해민 응급구제대책에대하야 협의하고저 삼십일일 오전구시부터 총독부제삼회의실에서 학무 내무 재무 농림의 각국과장등이 모히어 대책을협의한결과 구체적방법에 대하야는 각국과에서 다시 조사원을 파견하야 실지조사를 하게하고 대체의 근본방책은 부업의장려와 로임산포와 일부재해민에대하야는 량식의배급등을 하기로되엇다한다 그런데조사대는 구월이일에 사회과김(金)사무관을 비롯하야 농산과 사계과(司計課) 로지개량과등에서 각기 한명씩 이전 남북재해지 현장에급행하게되엇다한다

鷺梁津의六臣墓 古蹟地로指定

망초에싸여돌보는이업더니 永久保存의길이열려

총독부 사회과에서는 시외로량진(鷺梁津)에잇는 륙신묘(六臣墓)를 조선보물고적 명승천연긔념물보존령에 의하야 고적지로 지정하려고 이십구일에 엄(嚴)사회과장은 최(崔)고적계 주임을다리고 현장을 시찰하엿다는데 오래ㅅ동안 도라보는 사람도 업시 황페하여가며 문허저가든 『륙신묘』는 금후고적으로 지정되야 보존하게되엇다 그러면 『륙신묘』라는것은 어떤것인가 단종(端宗)시대의 륙신이라하면 충의(忠義)와 기개(氣槪)에잇서고금에 일홈이놉흔것이다 거금약사백구십년전에 『한글』을비롯하야 시표(時表)등의 작자인세종(世宗)대왕의 세손으로리조(李朝)제륙대왕인 단종이 경복궁(景福宮)에서 탄생 하시여 그의숙부되는 수양대군(首陽大君)을몰리찬 반대당때문에 비참한최후를 당하엿다 이때에겨우십이세에 즉위하신 유왕단종을위하야 충의를 다한 신하는 그 반대당에 의하야 모다참혹한 박해를밧게되야 즉위한지 삼년만에 왕위를때앗기우고 강원도영월부(寧越府)에 정배를 가시게된 단종이 동악으로 참살을당할전후에 목을바치어 충성을하고 재긔(再起)를 계획한때문에 화형(火刑)기타의 방법에의한비참한 최후를 맑게된신하는 부지기수이엇다 그러데 그중에서도 유왕을모시엇든 대표적충신으로 충의에잇서 도국게에잇서 오늘날도 세상사람의존경을 밧는이로 성삼문(成三問)리개(李塏) 유응부(兪應孚)박팽년(朴彭年) 류성원(柳誠源)하위지(河緯地)등 륙인이잇스니 이것이 소위『사륙신』(死六臣)이라는 의인이다 그러나 그들의 유족들도 당시의 정부의박해로 전멸되다시피하야 륙신의 분묘는 당시의 명신김시습(金時習)에 의하야 비석을 세우게되야 현재로량진의 한모퉁이에겨우 그형태만 남어잇서 리조시대에는 정부에서 엄숙한 제사도하엿스나 오늘날에 잇서서는 도라 보는 사람도 업시 황페하여 가고잇다 물론 분묘는적당한 관계자도 업고 묘지와그 부속재산물의 소유권도 이리저리 이전하야 아모 보존방법이업게되엿든것인데 민간에서도 유감으로생각하고 그보존의 필요를느겨오든터이라 이번 고적지로영구히 보존케되엿것은 각방면의 호평을바들것이다

新京哈市間線路 今曉三時間에改修

二百四十키로四呎八半까지로 大連서哈市로逐直通

【전통합이빈삼십일일발(電通哈爾賓三十一日發)】만주의대관문(大關門)과 북만주의대도회지 할빈(哈爾賓)을 일즉선으로 련결시키는 초특급(超特急)『아세아』(亞細亞)는 구월일일부터 개통되는데 이에따라 라광괴경빈선(京賓線)의『께ㅣ지』변경은 그전일인 팔월삼십일일 오전오시반부터 팔시반까지의 사이에 행하엿는데 신경할빈간이백사십키로의 장거리『께ㅣ지』변경을 근근삼시간에 완료하엿다는것은 세계 철도사상(鐵道史上)처음보는일로 각국 철도기술계에 주목을 집중하고 잇슴으로 만철(滿鐵)당국으로서도 대마력을내여 최고긔술을 다하야『께ㅣ지』변경은 광괴간오(휘ㅣ드)(呎)를만철표준사휘ㅣ드팔인치(吋)만으로 축소시키는데 보통로(普通路)는 한편만 교량우에는 량편을 다축소시켯는데이에 따라서 『팔십퍼ㅣ센트』의 부패된 침목(枕木)이갈니고 새로 십오만립방미톨(立方米)의 『빠라스』가 깔니게도엿다 이에 사용되는 종업원는삼천오『개ㅣ지』변경은 북만은 물론 전만철의 운수계통에 일대광명을 가저오는것으로 구월일일 부터 『스피ㅣ드업』되는『따이야』가실시되는데 가장현저한것은『아세아』의 할빈진출로 대련할빈간을십삼시간반으로 종래에비하야 칠팔시간의『스피ㅣ드업』으로 금후 북만의 물자배급이 원활하도엿슴으로 산업경제건설에 착착실행하리라한다

試運轉車無事着

【도뢰소삼십일일발(陶賴昭三十一日發)】신경할빈량역간을 출발한 시운전(試運轉)렬차는 무사히 오전십일시삼십분도뢰소(陶賴昭)역에 도착하야 경빈선(京濱線)『께ㅣ지』변경은이에정식으로 완료되엿다

江西檢擧事件 六名을送局

愛汗社라는表面看板으로 共產主義宣傳햇다고

【평양지국전화(平壤支局電話)】지난 륙월이십사일 평남 경찰부의 지휘아래 강서서(江西署)에 검거되이래 준열한 취조를 밧고잇든 강서군수산면 가성리(江西郡水山面可成里) 최학주(崔學柱)(二七) 외 최명신(崔命信)(二?)최증식(崔增植)(二?)최제숙(崔濟淑)(?)안목덕(安木德)(二?)등에 관한치안유지법위반사건은 그동안취조가끗낫스므로 지난삼십일일 검거이후 만두달만에 일건서류와함께 평양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하엿다 그들의 범죄내용이란것은 전긔최학주가 주동이되여가지고동리청년을 모하표면으로는 송을틔기계를노코 현송을트려 공전을바드며 한편으로는 주류(酒類)판매와 밋음식점영업을 경영해가며 거긔서 생기는 리윤으로 적색주의선전운동 자금을 삼엇고 또한편으로는 애한사(愛汗社)라는 표면단체를 조직하여 첫재 농촌계몽과 둘재로 산업경제발달운동을해서 자긔들의실지운동인 적색주의의선전을 하는 일방 작년일월엔 무명독서회(無名讀書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동리청년들과 함께공산주의의연구를하엿다는것이다 그리고세명은 검거당시에 탈주한까닭에 아즉체포치못하엿고 또일시는 이십여명을 검거하엿섯다

海外留學五千名에 送金額百七十萬圓

道別로는咸南北最多

조선인으로서 일본내지에 류학하는 학생은 경무국조사에의하면 작년중에 사천구백이십구인이고 만주와중국을비롯하야 구미각국에 류학하는 학생은 삼백십이인으로 합계오천이백사십일명으로 그들이 소비하는 금액、즉조선에서 송금한 금액은 일년간에 일본내지가 일백오십구만륙천삼백사십오원사십륙전이고 외국에 송금한것이 구만팔천원으로 합계일백륙십구만사천삼백십오원사십륙전의 거액에달한다 류학생의원적지별로본다면 일본내지에는 함남의륙백칠명이 최고로 그다음은 경남의오백삼십삼명이고 경긔도의 오백이십륙명등의순서이다 또외국은 함북의일백오십사명이 최고로 그다음은 평북의사십이명등인바 이것은 중국과만주에 갓가운지리적관계로 만흔터이라한다

教員名義를盜用 時計等月賦詐欺

본정경찰서에서는 수일전 시내봉의동(鳳翼洞)구번지의 삽호리명환(李明煥)을인치하야 취조중인데 그는수개월전부터 시내인사동(仁寺洞)태화녀학교(泰和女學校)교원이라고 속이고 시계귀금속상을 차저 금시계사진긔등 만전문으로 월부상완계약(月賦契約)으로 사취하여가주고는 즉일 전당포에전당잡혀 현금을 만들어 유흥비로 소비한것이 판명되엿다는 것이다 사취한액수는략삼백삼사십원에달한다고한다

五百同胞에게 撤退를要求

奉天十里馬頭에서

【봉천(奉天)】당지 십리마두(十里馬頭)에는 벌서이십년전부터 동포들이 거주하기시작하야 지금에는 구십삼호 오백여명의동포가 부락을 형성하고 거주하는중 최근에이르러서는 만주국(滿洲國)시정공서상부국(市政公署商埠局)으로부터 돌연히 땅을뷔여내라고 강요함으로 동부락에서는오백여명의 주민이 급작히 물러가기는 그리용이한 일이아니라하야 리진성(李鎭成)외오명의교섭위원을 선정하야 영사관(領事館)경찰서와 기타각방면으로 교섭중인데 그들은 금후 토지사용의 세금(稅金)을 내드라도 원주소에 류수케됨을강주중이라한다

牛疫豫防注射 大規模로實施

九月부터三個月間

경무국에서 조선내의 축우(畜牛)일백칠십만두의 방역책으로동긔에 압록강과 도문(圖們)연안에서 재독을 운반하는 약륙만두의 소에대하야 구월부터 십일월까지 삼개월간에 우역예방 주사를 단행하야 국경지대의우역(牛疫)의 면역망을 구성하야 만주로부터 우역의 침입을방지할작정으로부터 구월일일부터 예방주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엿다는바 이에관한 경비는 일만여원으로평북 함남북 세도에배급하여 실시할터이라한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颱風은 千島의北方에잇서 中國大陸及 日本의 氣壓配置는 極히 緩慢하다 東支那海南部에는 七五六미리의低氣壓이잇고 小笠原島附近의 海上에는 七六二미리、北朝鮮에서 南滿에 걸처서는 七六一미리의高氣壓이잇다 滿洲는晴하고 朝鮮은大槪天氣가조흐며 日本內地는 晴曇不定하고 阪神地方에 小雨가잇다

昨日 最高 二九、一 最低 一八、六
今日 正午 二六、七

運動競技欄

【天津】夏期休暇를利用하야 北中國의 國際都市·天津에 來征

天津의國際拳鬪戰에 朝鮮選手勝捷

…本社天津支局主催로…

한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아마튜어拳鬪軍과 在天津西洋人아마튜어拳鬪軍과의 國際對抗戰은 本社天津支局主催로 지난二十五日午後八時부터 當地日租界公會堂에서 盛大히 擧行한바 在留同胞들의 熱狂的聲援에 힘입어다음의 戰績으로 朝鮮中央基靑軍이 堂堂히 凱歌를 불럿다 이날밤基靑軍의 스포ー츠맨다운態度는 滿場한 內外國觀衆에게 好印象을 남기엇다

【오픈·께임】
洪顯奎(基靑)判定 趙勝進(基靑)
姜鶴道(基靑)判定 尹興進(基靑)

【對抗戰】
崔龍德(基靑) 無勝負 베리소프(天津)
洪在浩(基靑)勝
[illegible](基靑) 判定 레그(天津)
[illegible] 無勝負 양그렌스(天津)

◇寫眞上은 國際拳鬪戰의選手와役員一同 下는 勝利한中央基靑軍

養正凱旋軍 祝勝의밤

九月二日明月館

全日本 中等陸上競技大會에 出戰하야 二百餘校의 强敵을 壓倒하고 進二次覇權을 獲得한 養正高普凱旋軍의 祝勝의밤은 高麗陸上競技協會、서울陸聯、養正同窓會等의 共同發起로 九月二日午後七時부터 敦義洞明月館에서 開催할터이라는데 多數來參하기바란다고한다(會費一圓當日持參)

平壤府營水泳場 來月七日開場式

【平壤】平壤府營풀은 九月七日竣工式과 開場式을 兼하야 盛大히 擧行케되엿다는바 풀의長은 二十五米 幅十一米 五「코ー스」로 「스크린보ー드」「로ー타리빙」等가 設備되엿고 周圍에는 約五百人을 收容할수잇는「스탠드」가잇스며 脫衣場이 풀의北側에잇다 同日 午後一時부터 開場式이잇슨後 府內初、中等學校生徒와 一般의 競技大會가開催될豫定이다

驛傳走路公認

全州서群山、裡里

【群山】全羅北道에서는 驛傳競走 마라손競走의 公認「코ー스」로서 群山平野의 中心을 東南에서 西北으로 縱斷한 街路樹가잇는 道路를 陸上競技協會에 對하야 要求中이든바 全朝鮮四「코ー스」의 하나로 道間朝鮮陸上競技協會에서 驛傳走路는 全州群山間 四六、〇二四키로와 마라손走路는 全州裡里間(參禮經由)二七、七二九키로의 兩「코ー스」를 公認하엿다한다

關大2 府廳1

來征中의 關西大學野球團對京城府廳野球戰은 三十一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石井(主審) 藤井 田代 中村(壘)四氏審判으로 開始된바 結局二對一로 關西大學軍이 勝捷하엿다

關大 100000010—2
府廳 000100000—1
◇投捕=府廳(關、崔仲乙) 關大(西村、宮川)

大邱飛行場確定

울산(蔚山)비행장대신에 남조선지방의 대표적 비행장으로 될 대구(大邱)비행장 시설에 관하야 체신국에서는 명년도 신규사업예산에 대구(大邱)부에서긔부키로된용지(用地)십마평을 제한외에 토지매수비 삼마사천원과 사무소신축및 모든시설비사만사천원과 대구항공무전국(無電局)신설과 동시에 울산무전국을 수선할 비용사만사천원과합계 십이마일천원을요구하엿든바재무국(財務局)사정에용인되야 명년도에는 대구비행장이 준공되야 항공로의 중요한련락처가되게되엿다 그리고 울산방면에서는 아직도 맹렬한반대운동을하고잇스나 이미 재무국사정도 끗난터임으로 울산비행장은 이후불시착륙지로 남을것은 틀림업슬것으로 본다

개천에재봉틀

삼십일오전여섯시에 시내홍파동(紅把洞)일백륙십이번지 정동석(鄭東錫)의집 압개천에재봉틀 한대가노혀잇는것을 그집주인이 발견하고 서대문경찰서에 신고하엿는데아마 어떤도적놈이 남의 물건을 훔친것인듯하다한다

金銀 福 白金
東京市下谷區練塀町
株式會社 石福商店
電話下谷(83)四〇九〇・二五九〇・二八八〇・八八〇〇 振替東京六八八番 電信略號(イシフクケウト)
出張所 平壤府旭町

京城 金 金銀地金賣買所 合資會社杉山商會
高價買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七四番

●新學期開始 九月十五日(第一學期組)學則二錢切手
●中等科第一部 各中等學校入學準備
●中等科第二部 各中等學校上級編入受驗及鐵道從業員養成所遞信官吏養成所受驗準備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一三三番地(電本二一六〇番)

校舍大擴張 第四五回生徒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九月十五日
◇學則要二錢切手校舍運動機地二千有餘坪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一三三(電本二一六〇番)

癩病을全治
晉州郡本洞面萬山里 權仁圭 白
◉五十日分二十圓

自轉車材料原價奉仕 直接皆樣へ信用問屋
特典 最高級新車日英保險付 實用優美修理用品 ... 地方諸官廳納品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 日英商店 自轉車製作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株式會社 漢城銀行 專務取締役 堤永市
支店 京城南大門、同東大門、同西大門、同本町、水原、驪州、大田、永同、大邱、釜山、開城、延安、平壤大和町

近日公開
金剛키네마第六回作品 銀河에흐르는情熱
新生映畵 監督 安鍾和 撮影 李明雨 主演 李源鎔 申一仙
朝鮮劇場

第十回名古屋商品見本市
期日 昭和十年九月五六七三日間 自午前八時至午後五時
會場 名古屋市公會堂
◎第十回까지連續出席분에는 買上多少를不拘하고記念品呈上
優良廉價를 자랑하는 名古屋商品多數招待者는 此機會를勿失코來市를乞함
名古屋商工會議所內
主催 名古屋見本市協會
後援 名古屋商工會議所

OKEH 오케에流行하는 新民謠 압강물흘러 李銀波 오케ㅣ레코ㅣ드(一七九六番)

八月三十一日부터特別公開! 大衆料金階下十錢均一
映畫 마스라오 全九卷
◇大都映畫社超特作 劍戟 先生と劍道選手 全七卷
◇ミトヤ社超特作無聲映畫 現代劇 新養老の瀧 全三卷
麻浦桃花洞 桃花劇場

八月三十日부터晝夜二回超特別興行 新星座第三回中央公演
悲劇 毒草 全一幕
大喜劇 家庭主婦敎育 全一幕

九月一日부터特別大公開 階下席十錢均一
小花戀物語
貫鐵洞 電光三九五 優美館

九月一日낮부터三日間大公開
新興落成第三週…特選大作品鑑賞週間
每日晝夜三回 十二時、三時半、八時
現代劇 月よりの使者 全十二卷 入江たか子 高田稔 主演
西部活劇 나는카ㅣ보이 全八卷
名譽의旅人
旅客機의怪盜
櫻井町 本局六五 大正館

鍾路四丁目 電光一七二番 第一劇場
椅子席 二十五錢 階上席 十五錢 階下席 十錢

몸보하는 토마토는

요새흔한때사서 겨울에도잡숫게합시요

병에너어두는여러가지방법 모든료리에리용되오

몸보하고 맛조혼 토마토는 지금 이 한창 만히 나는 때요 딸아서 지금이 한창 갑싼 때언만 한녀름 두고두고 자서서 벌서 실증을 내시는 분도 업지 안 하실듯 합니다。물로 저장병(貯藏甁)에 너허서잘 간수한다면 조켓지오만은 그대로는 저장하기 곤란할 것이라 좀더 가공을 해야 되겟습니다。즉 토마토、펄프라든지 토마토、퓨레라든지의 조흔류를 맨들어야합니다。그 맨드는 방법은 아조 간단하야 일반가정에서 훌륭하게 될수가 잇습니다。

한 편으로는 오히려 그것이조치 안 할지도 모르겟습니다。저장병의 갑슨 한홉드리가 오십오전 반홉드리가 사십전까량이요 그병을 막는 고무페킹이 한개에 한삽사전기량이랍니다。실상 비용도 얼마 드리지안코서 저장해 둘 수가 잇는 것입니다。

×

토마토、펄프

잘 익은 토마토를 정히 씻어서 끌는물에다가 잠시간 익히어 낸 뒤 다시 껍질을 벗기에。처음에는 얼겸이 나종에는 풀체로 걸러 냅니다。그래서는 그것을 다시 양자그남비우에 담아서 얼마간 구더지도록 곱니다。

토마토、퓨레

그역시 잘 익은 토마토를끌라서 체에 담스고 체아래 그릇을 단뒤 밥찌는 통이나 또혹 솟속에 너허 푹쪄냅니다그래서는 체우에 남은 건덕이를 으깨어 체로걸르고 그릇에 떨어진국물을 반 내지칠홉으로조리어 한데섞습니다 이러케펄프를 맨들거나 쥬레를 맨들어서 저장병에 너흔뒤 끌는물에 그병을 담거서 다시 균을 죽이어 버립니다。그러면 두달 석달이 물론이요 한홉이라도 잘 보관해 둘수 잇습니다。그뿐이아니라

토마도를끌는물에

잠시간 익히어 껍질을벗기고소금에 살짝 저리어 저장병에너허도 또한 무방합니다。제일간단

토마토 펄프로 무엇을맨드는것이 조호냐 하면 켓첩이라는 것이 올시다。토마토、펄프를한되로 표준하고 그이외 물찌의 분량을 엿숨겟습니다。한편으로 소금에저린 생선 백몸메에 물여날곱흡을붓고 끄리어서 고기ㅅ살이 흐득흐득 하게될때 체로 바치고 다시 고운 생사헌겁으로 또한번 바치어서짠맛이 가[illegible] 펑수를 다[illegible] 한편으로 파 엿이몸메와 마늘 여덜몸메를 잘게다지고 초두홉에 타서

끄려가지고걸르는

동시 사탕(砂糖)몸메를 타노흡니다。그래선 양자그 남비에 펄프를 노코 뜨겁게 해가면서먼저 생선물을 처서 이기고 그다음 파마눌 물을 처서 이기다가 구연산(枸櫞酸)세몸메를 타서 용해해가지고 또다시 고우는데 적당히 구터 들어가거든 계피 호초 고초등의가루를 적의하게 배합해서 체로처서 조금뿌리어 넙니다。

×

로마토、퓨레로는 무엇을 맨드는 것이 조호냐하면쏘ㅡ스와『수ㅡ프』(서양ㅅ국)올시다『쏘ㅡ스』는 우리네가정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즉『수ㅡ프』맨드는 법만 엿줍겟습니다

『토마도스ㅡ프』

강판에다가 다마농이를 갈아서 밀ㅅ가루에 밧죽해가지고 데운 우유에 타며 토마토、퓨레를남비에 붓고서 끄리어내서 거품이 일도록 중소를 붓고 저은 뒤 아까 맨들어 노핫든 우유와 그이외 호초ㅅ가루 소금등을 너허 간을 마춥니다。수프의 맛은 대부분이 소금에 달린것으로서 만히 너허서도 못쓰고 적게 너허서도 못쓰는만큼 그점을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우유대신 닭의 고기를 살머낸국물도 물론 해롭지 않습니다。단지 우유를 쓰지 안할때엘랑 중소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理料런스탐

토마도채ㅅ국

다마네기와 일년감이 영양소로 조타는것은 누구나 잘아는 바이지만 어떠케 만드러먹어야 좀더맛잇게 또는 영양소도 소모되지안케만들수 잇는지를 잘 아지못하는분도 게실줄 압니다 먹기조코 속히만드는 법을간단히 하나소개하겟습니다

먼저 다마네기를 잘게써러 소곰에푹저려 꼭찌서 그릇에담고 초와 사탕과 소금 사탕과 소금으로 냉수를 붓고 채ㅅ국처럼 잘석습니다

다음 일년감을 껍질을벗게 벗겨 두어푼두께로 모양잇게써러 그릇과국물에따라 조화될만치 한대넛코 실백아지노모도를조금띄우고 실백을몃개 띄워먹으면 아주맛이조흡니다

이조흡니다 조리섹채를내려면 파란오이를 얇게써러 소금에저려너허도 조코 새파란 당궁이저지를 살작익혀 잘게채처너흐면 더욱조흡니다 다 이것은 맛이 조흘뿐만아니라 손님오섯슬때 깨끗한그릇에 회채처럼 과자와가티 채려서대접해도훌륭합니다。

본바닥 류행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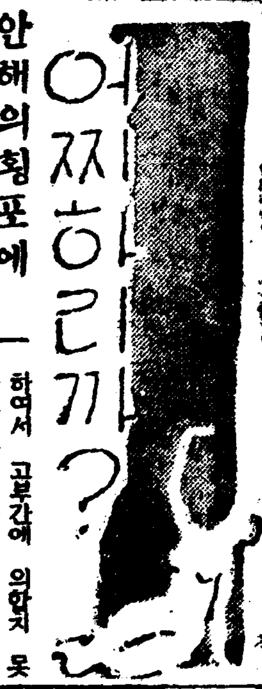
올 가을 모자철이 박귀니 옷도 박귀고 모자도박귀니다 사진은 미국『뉴욕』에서 금년도 류행을 지도하리라는 네가지형의 모자입니다

一、(사진 왼쪽 우) 흑색『크라운』형의 베레-와 비젓한것에 빨갱이와 초록색의 새털을 좋음히 꼬진것

二、(왼쪽 아래) 요건래 볼수업든『베로아』제의것이 되도라 왓습니다 간단히고 장식업는것이 조흔특색

三、(올흔쪽 우) 타조의 털을 배합한 팟빗(小豆色)나는『베로아』제인데 귀족적인 기분이 잇스나 어새하지 안흔것이 취할점

四、(올흔쪽 아래) 꼿이뾰족한 새빨간 거위의펜을 배합한것이 새로우나 이때문에 엇전지 악마적인데가 잇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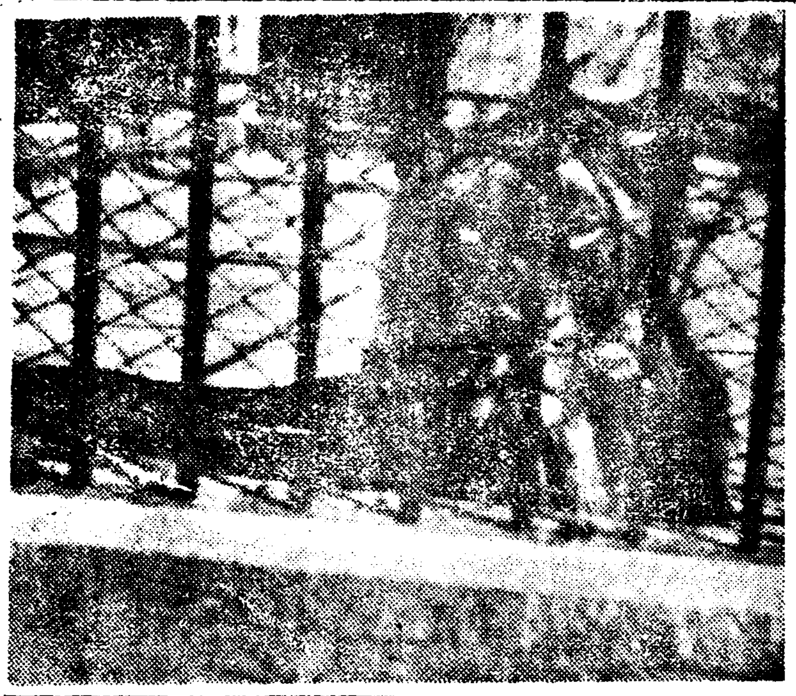


안해의횡포에 견데날수업소

問 저는 당년 이십사세의 청년입니다 칠년전에부모의 명령을좃차 구녀성과결혼하야 지금은 세살먹은딸까지 낫케되엿습니다 그런데 저의 안해는 성질이 온전치못하여서 고부간에 의합지 못하고 가정 불화가 끈칠날이 업습니다 그러면 저와의 부부간의 치는 조흐냐하면 그러치도안습니다。성질이나 인물이나 지식이나 하나도 취할점이업는안해와 엇지 외가족챗습닛가。그저 주위의사정과 모든 인습에 끌니어서 그날그날을 살어갑니다마는 그래서 하도 가정이 불화하기에 안해에게 순하게 타일르기도 하고 위협도 하여 보앗스나 좀시 듯지 안코 고집부리는데 요전에는 시어머니와 언쟁을하고서 집안살님사리를 돌보수업서서 손해도 불소하게 되엿습니다。저도 참다못하여서 안해되는 사람을 자긔친정으로 데려다주고 최후의 말까지 하고왓더니마는 몃칠후에는 후회를하여서 개과를하려고 그러는지 잘못햇다고 하면서 다시 와잇스려고합니다。그러나 저는 안해와 불화부터 인제에 엿긴때이고 이러케 되고보니 다시 데려다가 가려 살고싶지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애정동안을 안해로인해서 모든 불평과 불화를 계지오는라고 연제는 신경쇠약까지 되엿습니다。리혼을하는것이 조흘까요 (金浦一讀者)

개과천선하도록 한번더충고한뒤

答 서양가트면 안해나 남편이나 성질이 횡포하여서 가정에 불화를 자아내면 리혼할 조건이 충분이 되나 아직도 우리조선에서는 그래케 간단하게 문제가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정과가티 당신의 안해가 그러케 불순하고 횡포하다면 신혜영이니 구여성이니 할것도 업시 리혼을하는것이 조흡니다 부부의 가장 정당한도덕은 서로 개인으로서 도와가면서 공동생활을 하는것이라는 당신이 안해로인해서 육에병이 생길지경이라면 그러한 안해를위해서 당신은 희생할 의무가 업는것이며 또한 옛날도덕으로보드래도 부모에게 불효한 안해는 출처하는 법도 잇스니까 어떠로 보나 제래로 당신의 말과가티 당신의 안해가 횡포하다면 리혼을해도 조흡니다、그러나 속담에 한번 엇게 보면 발ㅅ등긋치가 둥근것도 밉다는 것과가티 당신의 감정이 편협하여서 당신의 안해를 한번밉게 본때문에 그럿케 모든일이 밉게만 보일는지도 모르는 것이니 만약 그럿타면 문제는 달너지는것입니다。하여간 신중이 고려해보아서 아모리해도 당신의 안해가 천선개과할빗치 보이지 안커든 리혼하시요 (一記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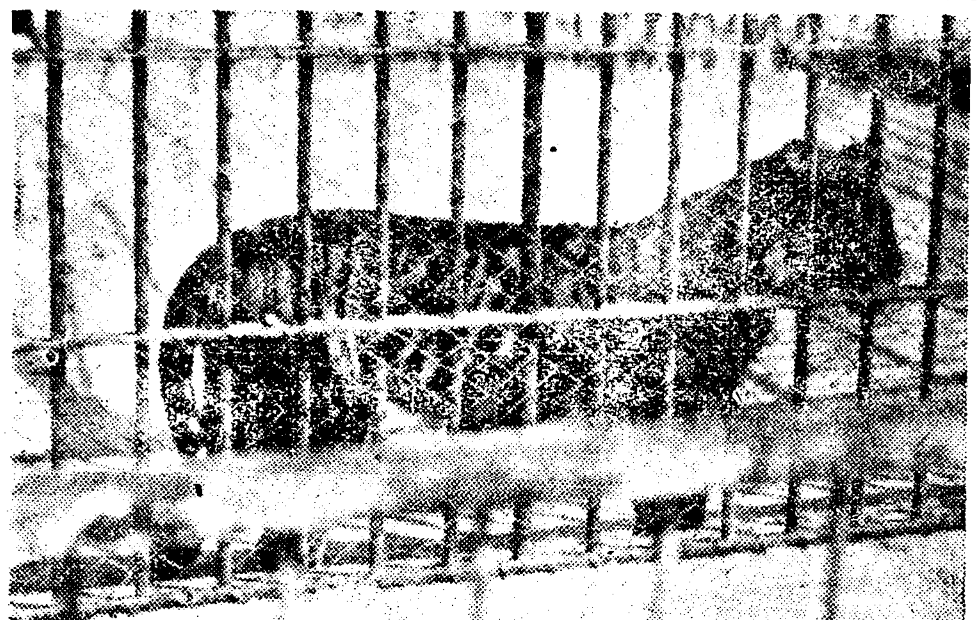
회ㅅ배에『싼토닌』먹는 사자와호랑이

한겨울은『스팀』잇는양옥집에서

맹수들에게 무서운 전염병인 마비저병(馬鼻疽病)으로 지난번 창경원 사자와 호랑이가 몰살을 하다시피한후 새로사드린것이 사자제마리、호랑이한마리입니다 사자중한마리는 전에 창경원에서 나가지고 일년전에다른데로 팔렷다가 되도리온것인데 비록 증생일망정 옛집을기억하고 여간반가워하는 기색이 보이지 안헛다 합니다。

사자의 원 고향은『아푸리카』와인도(印度)인데 우리네가 흔히보는사자는 대개가『아푸리카』사자이지만 동물원에 잇는 사자들은 즉접 제고장에서 잡아온것이아니고 이곳저곳동물원에서 나서 자란것들입니다 그럼으로 제고향산천은 꿈에도못보앗슬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질이 퍽유순하고 사람에게 잘따릅니다。나어서 여섯달 가량만되면 거이 사람의 키만콤자라지만 천진스런 어린애들 처럼 사람에게 매달리고 업히고해도 무는일은 업습니다 현재 창경원에잇는 사자는 나히 가세살된 암컷두마리、숫컷한마리인데 처첩을 거느리고 한집에 사는셈입니다

호랑이를 말슴하면 먼저잇든 호랑이는 만주에서 색기쩍에잡아기른것을 사드린것인데 큼대로커서 풍모가 준엄하야 백수의왕인 관록을 보엿습니다만은 이번것은 난지 오래되지못해서 체구가 비교적 적습니다。원산지는 중국남쪽인데 빗갈이 만주산보다 붉은것이 특색입니다



사자와호랑이는 고기만먹고삽니다。아침 여덜시쯤해서 우유한홉(一合)으로 입가심을하고 오후세시쯤해서쇠고기 백량ㅅ중(一貫)을 점잔히 안자서 천천히먹으면 그만입니다 더먹기야 하겟지만 체중이 날까바 더안멕입니다 그런데 여름은 입맛업슬때라 아호랑중으로 주리고、겨울에는 간육가다간유(肝油)를 먹이는데 이것은『비타민에이』를 섭취하는목적도 되려니와 뒤가조한데 즉변비(便秘)기운이 잇슬때 먹입니다。그리고 날고기를먹는 니만큼기생충(특히회충)을 업시하기위하야『싼토닌』을 고기에 싸서한달에 한번식 먹입니다。병이나면 약도쓰고 산소흡입(酸素吸入)도 할뿐더러 병은 먹는데서 탈이 잘나니까 매주일 수요일은『굼기는날』입니다。그들에게는 아주 재수업는날이지요。그리고도 사자는 열대지방(熱帶地方)산물이라 조선가튼 치운지방에서는 한겨울을『스팀』잇는양옥집에서 지내서 호사스럽지요

◇

사자와호랑이의 몸갑슬말하면 사자는 아곳저곳 동물원에서색기가 작고나서 밧그로 잘사람만잇스면 파라버리는 형편이니까 몸갑시 퍽싸젓습니다。큰놈이래야 그저 팔백원 적은것은 삼사백원 호랑이는 비교적귀한동물이라 일천오륙백원、지금잇는것은 어리다하지만 팔백원가량됩니다。

◇

사자와호랑이가 싸우면 어느편이 이길까?사자는 용감하고침착하고 호랑이는 몹시기민합니다 사자는『아푸리카』호랑이는『아세아』의 이러케 나는곳이 다르니까 서로맛닥드러볼기회가 업겟지요만 힘이사자가더세다고 재치가 빠른호랑이를 반드시 이기리라고는 장담못할것입니다 도리혀 질찌도 알수업다는것이 전문가들의 보는점입니다。조선호랑이만큼은이라 이소리를듯고 백두산호랑이가 벌떡일할찌도모르면서 눈을 끔적끔적할찌도모릅니다『내로라!』하고。

(昌慶苑動物主任 淺見氏 談을듯고)

얼굴에털만흔데

問 소생은 금년 이십세청년이온데 안면에 모발이 다발하야 일상근심이올시다 이후로 전면에 발생하며 털두성이가되여 여러가지 약을 사용하야보앗스나 효력이 무하와 엇습사오니 엇더케하면 발생을 막을수잇스며 어떤 약을 쓰면 발모를 업새수잇슬가요 효약을 하교하여주시옵기를 바랍니다 (江原 L·H·H生)

答 소위 탈모약(脫毛藥)이라는것이 근래 신문、잡지광고에 허다하나 이것은 대개 바리체생활을하게된현대여성들이 겨드랑이털갓흔것을 업새기위하야 쓰는데 불과하고 당신과갓흔얼굴에 난 털을업세는데는 별효과가 업슬뿐 아니라、도리혀 피부염이 생기어 고생할지모르니가 그대로 두고 자조 면도나하십시오 남자의얼굴은 털도좃고 거무스름한편이 오히려엄이잇서서 나흘지 모릅니다。(大學病院小川外科 金晟鎭)

만성위염

問 금년삼구세소년이온데 칠팔년전부터 체증이 잇기시작하여 지금은심하야저서 먹는때마다 잘네리지안코 수축이 차며 잡이만코 하품이만코 두통도나며 금시에 정신이 업는것가트며 얼골이 창백하여지고 가삼이 답답하면서 식욕은 조회질 내히나 이상말삼한 증세로 인하야 만히 먹지못합니다 백방으로 약을먹엇스나 낫지안습니다 사생을 판단코저하오니 신회한약을 가라처 주십시요 (忠北 一讀者)

答 사생을판단하신다하니 너머과도한생각입니다 당신증세로 보면 만성위염(慢性胃炎)인것갓습니다 음식을 잘 씹어잡수시고 한때에 과식은 금물이며죄 기처방을 일게월간 련복하시고 적당하게운동을 하십시요

一、重曹	一、五
지아스타제	一、○
판크레아진	一、○
호미카엑쓰	○、○六
燒製마그네시아	○、七

右分三包一日三回食後三十分服用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불량소년은

엇던집안에 만히나나

어느도회지나 불량한소년과 소녀들이 만히 생기어서큰 걱정꺼리를 이루고 잇습니다。자식을 나하서 잘되지는 못 할망정 깍정패나소매치기패로 보내고 나니 그부모의 상심이 얼마나 하겟습니까? 오죽 부모만아이니라 전사회로도엄마나 큰문제오니까? 동경부에잇는아동연구소에서 불량아동의가정을 조사하얏는바 그부모들의 직업은 아래와가튼 비례를보이더랍니다。

◇아버지의 직업(六百八十二名)

직업업는이	三四名
로동자	一三三
직공	一一四
상업	一三六
농업	三〇
회시원	四六
쟁인	二四
관리	二三
기자	五
의사	三
출판업	四
그타직업잇는이	三〇

◇어머니의직업(二百十七名)

로동자	一九名
녀직공	三五
쟁인	一三
녀하인	一八
간호부	二
상업	三一
농업	一三
사무원	一
교사	五
점에서일해버러먹는이	五四
배우종류	四
파출부(派出婦)	二二

世界文藝童話集

獨逸 뷔르헬름·하우푸 作

학이된잉금님 ④

崔秉和

크고뚱그런눈에서는 눈물이 뚝!뚝!떠러지고 활과가티 힌주둥아리로서는 우름소래가 새여나왓습니다。

부엉새는 잉금님과 그뒤에따라드러오는 대신을보고 깃부듯이 소리를질럿습니다。날개로눈물을 깨끗이 씻스면서 부엉새는 사람의말로 이약이를 하엿습니다。

『잘오시엿습니다。학님들 당신네들은 나에게잇서서는 구원밧는 표적입니다。나는 학님의덕택으로 행복스럽게 될수잇스리라고 예언을 들엇습니다』

잉금님은 놀나는것이 진정되자 긴목아지를 꾸푸리면서 절을하엿습니다。

『부엉님! 당신의말슴을드르면 당신은퍽 불행한가운데 빠지신것가티 생각이듬니다。그러나우리들은 도저히 당신을 구하야드릴수가 업습니다。우리들의신세를 드르시면 그것을 잘 아

실수가잇겟지요』

부엉새는 이약이를하시라고청하엿습으로잉금님은 지금까지자기를두사람에게 이러난 가지가지를 이약이를 하엿습니다。

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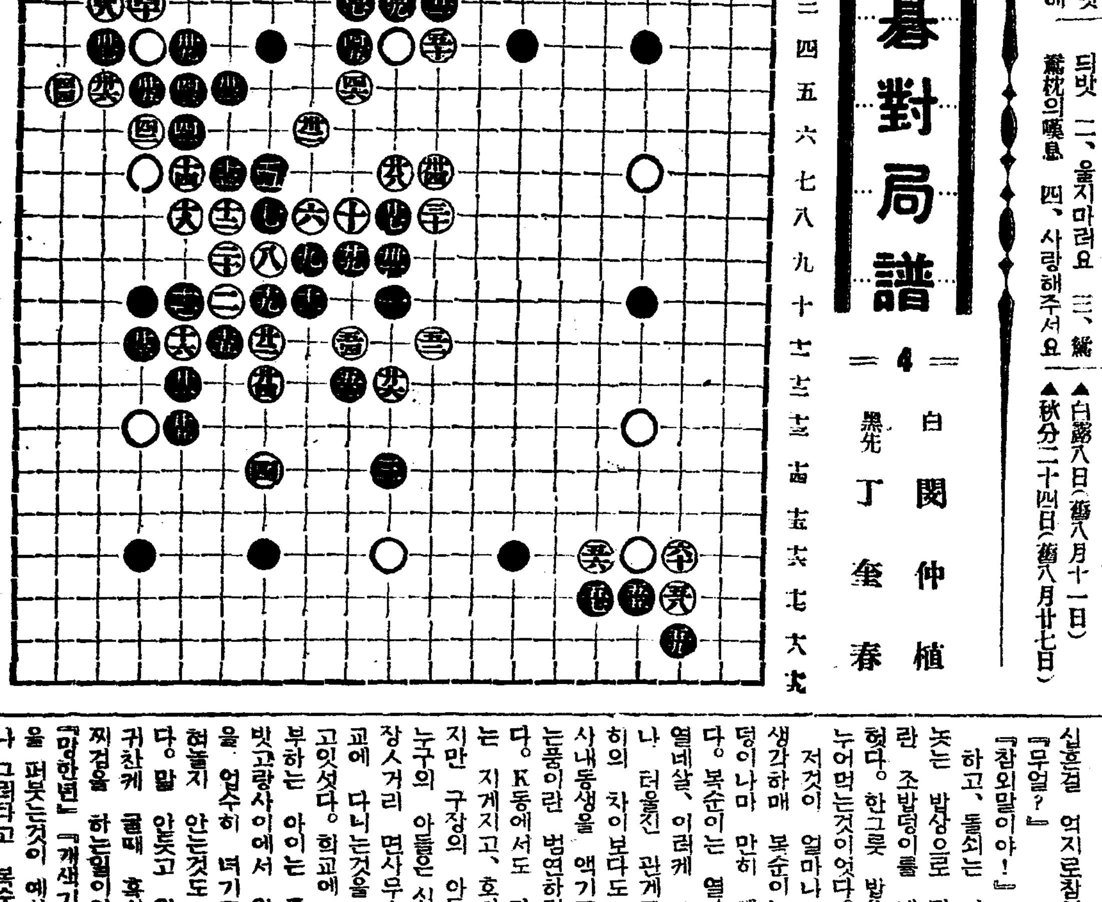
입금님의 이약이가끗나자 부엉새는 입금님에게 인사를드리고 그리고 자기의신세를 이약이하엿습니다。

『저의아버지는인도(印度)의 임금님이엿습니다。저는 차-루라고 합니다。두분에게 마법을씨운 저 마법사의 가슈눔이 나를 이러케 맨드러 노앗습니다 어느날 가슈눔이 아버지에게 와서 나를 자기아들과 혼인하자고 하엿습니다。아버지께서는 성질이 급하신 분임으로 대단히 노하시면서 그놈을층계우에서 아래로 떼미러버리셧습니다 가슈눔은 그때부터원한을 품고 원수갑흘때를 엿보고 잇섯습니다。

어느때 제가 뜰에서 산보하고잇스니깐 저놈이 노예로변해 가지고 물을 가지고 왓습니다 그물을 마시기때문에 나는 이러한 끔직한꼴로 변하야버리엿습니다。너무나 놀나서 기절해

버린 나를 이곳으로 데불고와서 나의귀에다가 입을대고 이러한 이약이를 하엿습니다。

——너는 죽기까지 이곳에잇지안호면 안된다。그러케 보기흉하게 생긴생김을해서는 가튼 김생들 사이에서도 낫추어볼것이다。그러나 누구든지 끔직한 꼴을해서도 안해로 삼겟다고하는 사람이잇스면 너는 구원을 바들것이다。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4=

白 閔仲植
黑先 丁奎春

【●四五】子의四 【○四六】子의五 【●四七】子의三 【○四八】午의三 【●四九】癸의三 【○五〇】壬의四 【●五一】壬의三 【○五二】壬의十一 【●五三】子의十二 【○五四】子의十一 【●五五】丁의七 【○五六】戊의十六 【●五七】戊의十七 【○五八】丙의十七 【●五九】丙의十六 【○六〇】丙의十六

◆蔡極文氏評

黑이 子의三으로 擋立함을 白이 午의三으로 應함은 見機敏速이아닌가 黑이 壬의三으로 進出함에 白이 壬의十一로 鎭點을 着하니 白의 先見은 蔚然可觀이어니와 黑의失策은 明然히罪인고 黑 壬의三이 急務가아닌즉 中央數백을 先圖하엿스면 白이 危難에 迫近함을 엇지알리요 黑의 中央失敗는 痛惜하도다

卅一日 (土曜)

◇午後六時三〇分 하모니카獨奏 李東坡
◇同六時五〇分 兒童週間新聞
◇同七時 라듸오學校 가을에우는버레、가을에피는꽃(二) 徽文高普 李軒求
◇同八時 講話 標準語制定에對하야 (二) 李克魯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잔듸밧 二、울지마러요 三、鷰枕의嘆息 四、사랑해주서요 [illegible] 七、十八歲의밤 宋奎愛 伴奏 ＯＫ管絃樂
◇同九時 歌謠 一、羽衣[illegible] 二、[illegible] 三、[illegible] 五、[illegible] 琴 金相淳 大琴 金永根 鼓 金一宇
◇同九時三〇分 古談 [illegible] 申靑吾

一日 (日曜)

◇午後六時 賣唱과雜唱 一、賣唱 오리떼 二、[illegible] 三、同 엄마일흔개고리각시 四、同 [illegible] 五、同 [illegible] 오는밤、달마지 五、同 [illegible] 와금붕어 七、同 어머님생각 八、賣唱 참새 쾌풀이 伴奏 尹喜永
◇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話 信仰의普遍性 吳天泳
◇同七時三〇分 關山戒馬外 一、關山戒馬 二、平愁心歌 三、역금愁心歌 四、양산打鈴 五、뒷산打鈴 六、樂山道 崔眞子 吳飛燕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天下泰平 二、唱劇調 赤壁歌 宋萬甲 鼓手 池龍九
◇同八時四〇分 名曲鑑賞 (레코-드演奏) 피아노와管絃樂 皇帝協奏曲…베-토-벤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아다-지오·운·포코·못소 終結章 론도(알레그로) 朝鮮音樂家協會 解說、玄濟明 피아노、왈터·기-제킹 管絃樂、위난·필하-모니管絃樂團 指揮、브루-노·왈터

二日 (月曜)

◇午後〇時五分 報念外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興打鈴 四、개고리打鈴 鄭柳色 金玉花
◇同二時 趣味講話 朝鮮劇界의昨今(一) 安鍾和
◇同六時 童話 눈먼ㅣ勇士 李定鎬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景氣觀測의基調 全弘鎭
◇同七時三〇分 氣象講話 二百十日과氣象 趙永根
◇同八時 小春香歌外 一、小春香歌 二、平壤歌 三、博物歌 四、회모리 五、노래가락 趙牧丹 李竹葉
◇同八時三五分 (東) 管絃樂
◇同九時一〇分 回心曲 金壽男 河龍男

曆

九月一日 (日)
舊八月建乙酉(大)初四日
庚辰·金·鬼·成
▲白露八日(舊八月十一日)
▲秋分二十四日(舊八月廿七日)

短篇小說

福順이 (三)

宋影 作
熊超 畫

『응 다팔엇서。오늘 장사는 실오천이나남엇네。』

복쇠는 코를 벌룽거리면서、장한 일이나 하고온것처름 주머니를 꺼내여 흔들어보이면서 자랑햇다。

『마라 벼락다。배곱흐지안냐? 누나하구 밥먹어라。』

어머니는 이러케 말하고서、맨나종으로 한개남은것을 줄에 마저 널고서 비로소 웃는낫빗을 보이며 보여울로 들어갓다。

『응、인자 보니까 누나도 점심 안먹엇구나……난、혼자서 먹을줄알고용해부절나고해지』

『나뿐색기!』

『어째서 나뿐색기야?』

『고럼、왜、욕한대니?』

『내가 욕햇나? 욕햇나? 안햇는데 왜 넘보고 욕하는거야?』

『그만두라야、심할나고 덤뷔는게냐、배곱흐다。어서、밥이나 먹자。』

『나도 배곱허!——누나하고썸안햇나다——오늘、내、참、먹고실흔걸 억지로참엇네。』

『무얼?』

『참외말이야!』

하고、돌쇠는 어머니가 갓다노흔 밥상으로 달려들어서 노란 조밥덩이를 냉수에 말어너헛다。한그릇 밥을 남매가 나누어먹는것이엇다。

저것이 얼마나 배곱헛슬가! 생각하매 복순이는 식은 조밥덩이나마 만히 빼서먹기 실혓다。복순이는 열아홉살、돌쇠는 열네살、이러케 그들은 다섯해나 터울진 관계도 잇지만、나히의 차이보다도 복순이가 제 사내동생을 액기고 위해는 주는풍이란 범연하지 안흔것이잇다。K동에서도 가난한집 아이는 지게지고、호미나 쥐고 하지만 구장의 아들이라든지、또 누구의 아들은 십리가 좀더되는 장ㅅ거리 면사무소 겨레잇는 학교에 다니는것을 복순이는 알고잇섯다。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아이는 돌쇠가티 안과 빗고랑사이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업수히 녀기고 가치 취싸허돌지 안는것도 그는 알고잇다。말 안듯고 일 저줄르고、귀찬케 굴때 혹시 복순이가 손찌검을 하는일이잇스면 돌쇠는 『망한년』『개색기』해가면서 욕을 퍼붓는것이 예사이엇다。그러나 그러다고 복순이가 제동생을 터때려주거나 마주욕을하거나 해본일은 이실년 이래로는 한번도 업다 그전에는 복순이가철이들기전에는 마추 욕찌거리도 하고 쌈질도 햇섯스나 그럴 띄에 복쇠가 제 누어다니 왕복하고 저버리는냐하면 그러치안코 점점 더 귀송해지고해내는 경우를 여러번 당해보고서 복순이는 자긔가 그래서는 안되겟다고 결심한것이엇다。

『너 왜 우리집에서 밥먹고잇늬?계집애가 왜 사내 돌이버려오는 밥만 먹고 잇늬?저거、파려먹을년!잡년!잡보집아나、해먹지누가 밥먹고 잇스랫나!』

껍득하면 복쇠는 어떠위 의가는소리를퍼붓기도 햇다。갑보가 어떤물건인지 알리지도엄슬 돌쇠가 이런욕을 배운것은 작년부터 명월누라는 술집에 생긴 그술집에 명월이라는 작부가 몸갑 이백원에가 외백원엔가에 팔려와서 술팔고、노래하고、팔부들에게 밥에 몸까지 파는것이 K동리의녀자들의 이야기꺼리가된뒤부터이다。

사실、명월이가 K동리에 출현한이후로 복순이아버지 만틀이의 술버릇도 노릇고、복순이어머니와의 싸움도 자저젓고、싸움끄레 복순이어머니의 입에서、게집도 팔어서술사서먹고 복순이도 파려서 술바려처먹으라!는 자포자긔하는 극단의말이 쏘다지기도 한두번이 아니엇든것이다。그래서 이 모든것이 돌쇠의 새로운 지식이되엇다。복순이는 돌쇠가갈보질이나하라고 욕할때마다 웬일인지 진저리가 날만큼 무서운 느낌을 밧는것이엇다。그이상가는 욕은 아마 업슬것가티 생각키는 것이엇다。

그리고서、과연 자긔의 압길이 어떠케 될것인가?현재 곰점판에서 막버리하는 아버지가 맥여주는대로 언제까지든지 밥만 먹고 어머니겨레서 떠나지안허도 조흔것인가?또는 알지못하게 어떠케 전정이 변할것인가?——이런 궁리를 해보다가는 재힘으로는 든득해낼수업는칼감한 문제임에서 그대로 물러나기를되푸리하여왓다。

돌쇠는 숫갈을 자우고서 몸을 독쿠터렷다。복순이는 이때까지 멀거니 딴생각을 하면서 먼산을 바라보고잇다가、돌쇠가 먹고난상을 들고 이러서면서、

『어머니는 밥 안먹우?』

하고、어머니를 바라보앗다。

『실타。인자 저녁때가 가차워오는테、조곰잇다 저녁이나 시작하면』

어머니는 이러케 말하고 안업시 삿자리우에 들어누엇슴

夏天星象

七夕傳說의 原由

─牽牛星차저가는太陽系─ (5)

安在鴻

이제 牽牛 織女 悲戀說話의 來歷부터 밝힐必要가잇다 東洋各國民의 共通한 說話처럼되어잇스나 이것은

【分明】 中國이 그本고장인것이니 南北朝 宗懍의 『梁帝時人』의 荊楚歲時記에 『七月七日은 爲牽牛織女의聚會之夜』라고한것이 그가장明白한者이오 『迢迢牽牛星、皎皎河漢女。纖纖擢素手、札札弄機杼。終日不成章、泣涕零如雨。河漢淸且淺、相去復幾何。盈盈一水間、脈脈不得語。』하는 漢代古詩로부터 晉의 陸機가 이를본바든擬古詩가잇서 世間一般으로 漢晉以來의

【說話】인줄로 아는이 나 그러나詩 小雅 『大東』 章에 『維天有漢、監亦有光。跂彼織女、終日七襄。雖則七襄、不成報章。睆彼牽牛、不以服箱』 하는데서 보아 周代의 以前 아득한 時代부터 이미 이說話가잇섯든 바일것이 推諭되는 다 現代 天文學者의 主張에는 宇宙의 基本構造인 銀河에는 원낙 新星의나타남이 가장 만흔데다가 牽牛織女의 자리잡은附近에 許久한동안 數만흔變光星과 新星의나타남이 가장만코 그들의變幻하는

【場面】이 항상수얼대고 설레는바마혀 上代中國의農業民이 原始的인 天象觀測의 지음부터 벌서 異樣의感觸을 이으켜 이리에서어떠드되어는 사내별각시별의 週期的會合에 說話를 이르킨것이오 이것이 일즉부터 各國民의사이에 떠진것이라고한다 × 어찌햇든 中國의 牽牛織女說話는 자못徹底한바 이어서 孝堂山 畫象石에 日月象을 나타내인자리에도 織女星을 그으리고 機上의婦人을 삭엿스며 象하야

【牽牛】를 그으렷것에보더라도 이를半넘어진작할것이다 이것이 朝鮮에流傳하는 說話로는 두가지잇스니 『에기씨 본데는 上帝의 따님으로 밤이나 낫지나 베틀위에서 길짜는것이 일임러니 牽牛인남편에게 시집간後 사랑하고 사랑하야 暫時떠러지지안코 길짜는일은 무어라 아모데나보자는 듯이 좀체로 돌아보지 안흠으로 上帝께서 참따못해 엄중이 나서 이어엽분 夫婦를떼어 남편은 개울의東便에 각시는西便에 귀양사리 시키면서 남편은 소를치고 각시는 길쌈짜되 一年에한차례 七月七夕에

【烏鵲】으로 다리를노코 건너가서서로맛나게하기로한다』는 것이니 좀 雅한者이라 共通된 說話系統인것이오 또하나는 『織女는 上帝의딸로 어느仙官에게 시집가서 아들 七兄弟를 나헛스니 그는곳 北斗七星이라 뒤에남편이 不幸히죽고 織女는 홀로 空閨를직히기가 쓸쓸하야 父皇上帝의분부도 못지안코 제사날로 牽牛에게 改嫁를가니 牽牛는『집신하라비』라 七兄弟가 다만은 업스되 막내아들은 항상

【눈흘】 흘겨 어미를 노려보고(北斗最端은 搖光星이니 흘갈리 반짝던다) 上帝께서도 그르나 엄중이 나서 夫婦를떼어 개울의 東西에두고 一年한차례씩이나 맛나보도록 시킨것이라』고한다 그 故說話가드나 流傳키 어렵고 成로 原說한想이 漢陽朝以來에 生한 士俗的으로 多少의興味가이다

× 織女星은 周天第四番의 明星으로 距離는 北極星보담 훨신멀어 二十六光年이오 光力은 太陽의 九十倍以上이라고한다

【朝鮮】 의말틈이밀하남이 멀하남고 說明하는 東의두별이잇되 그아름다운 二重星이오 南에잇는新書四等星은 變光星으로서두個의 환한별이 동글동글 안코돌아 포개진때는 작어뵈이고 나란히 되는때는 커지는것이며 그外에도 環狀으로 光彩못는 環狀星雲이잇서 그玲瓏燦爛한 맛이란 上界의玉女가 花燭洞房으로 치장해논듯 검맛는 景像이다

【日月】 天에는 天紀라 斗와 牽牛也라』하고 註解로써 『牽牛 斗者는 日月 五星之所終始 故로 曰 星紀라』고한바 엇가니와 現代天文學者들은 大體로 一秒十二哩의 念速力으로 牽牛織女그어섬을 向하야 永遠의길을 가고 잇는것이 라고하니 東西의 說이 合致되는바이니와 만일 太陽系가 牽牛나 織女星에가 끄을려 들고 만다면 人世의 一大事이다 그러나 다만 太陽이 그 제일먼 海王星의 軌道의 直徑만큼 되는 距離를 옮기는데는 十五年이걸리고 太陽의 引力이 잇는範圍만큼을 버서나서 새로운位置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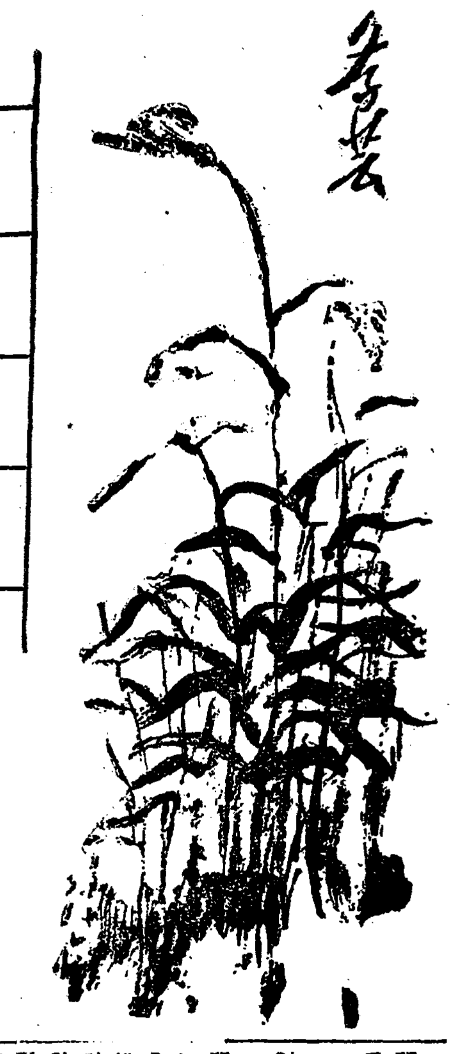
【移動】 하는데는 數世紀가걸리고 太陽系가 一光年의 距離를 옮기자면 一萬六千年이나 걸리고 가장 갓가운 恒星의 距離인 四光年半을 가기에는 六萬八千年을 要하고 銀河의 中心까지 도달하려면 지금부터 한八億年을 要한다고하니 多少性急한 분이라도 아주은 安心하야조라

文學의 擁護 ─(八)─

作家와評論家의意見遞傳

疾風怒濤를 超克하는偉大한情熱

林和



文學우에作用하는 이른바 外的要因다시말하면 非文學的인힘이 文學에加重하는 묵어운肉感이라는것이 엇지 오늘날에 限한關心이겟습니까? 文學이 더큰意味에잇서서 人間의

【生活】 그自身이며、또 그가운데의 相當히 重要한 構成部分인 點에잇서서、始初로부터 恒常 生活的이엇고、現實的 生活의 盛衰가 곳文學의 興亡의 運命을 制約한것이 아닙니까? 뿐만아니라 往往 文學의힘이 現實社會의 生活을 左右하는것과 가튼 外觀을부칠 特有한文學史의 局面에서도 窮局에잇서는 人間의 歷史的生活이 『이데오로기ー』가갓는바 特有한法則에 依하야 文學우에 影響주고잇는것이란 單純한 常識일것입니다 더욱히 넘우나 정말 지내치게 過度하 現實生活과 密着하고、그것에 支配를 다른엇더한 나라의 文學藝術보다도 尤甚히 밧고 發展해온 우리朝鮮의 新文學의 길지안흔 路程을

【外貌】 만이라도 머리속에 그릴수잇는 能力이 잇다면 所謂 文學外의 外的要因과 朝鮮文學과를 새삼스러운 問題로 생각할라고는 아니할것입니다。 約十年前新興文學이 生活과文學의 不可分의關聯、文學에 對한 現實生活의 優位性을强調햇슬때、저럿是 얼골을붉키고、손을내저으며

藝術은 그自身이다! 藝術은 엇더한 生活이나 物質的인것을爲하야 잇는것이 아니라。純粹히 精神的인自由스러운 世界、그自身을爲하야 잇다고 强調하는、新傾向派의 反對者들의 文學도 決코 그文學自身을 爲하야잇는 純粹存在는 아니엇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言行과는 無關係하게 그들은 同時代의 다른諸外國의

【文學】에 比하야 훨신마치 社會的인、生活的인 文學이엇습니다。 그들의 意圖나 主觀의始何를不問하고、그들의 藝術은 文學하는것보다는 生活하엿스며 그가운데서 더만히 生活의 現實을描寫할 意志와 能力을갓고 그것이주는 感情과 思想을 表現할나는 文學이 오늘날까지 가장優秀한 藝術品으로서 우리들새로운 藝術的世代앞에 遺産으로서남게되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들이文學에잇서 더욱이 우리朝鮮文學에잇서 가장現實的인 方法우에서自己의 藝術的創造의길을 여러나간 努力은 朝鮮文學의 處女地를開拓한 最大의 敬意가운데서 待接바더야할것입니다。 우리가지금 想像할수잇는 그들先驅者들의

【困難】 가운데 가장큰 困難은 오늘날의 文學이 새삼스러운듯이 問題삼고잇는 文學의外的壓力에잇섯다는것을 正當히 記憶할줄아라야 할것입니다。 特히 이要因이 가장 컷다고 하는것은그들이 밧고잇든雜多한 言語的 藝術的 困難이라는것도 決局은 이要因에로還元될수잇는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갓는 歷史的인 또階級的諸限界는 그들로하야즘 善良한 意見을最後까지갓게하지못하고 必然的으로 生活的인것으로부터 非生活的인것에로 轉向케하고 現實의 描寫로부터 그歪曲者로 또 新時代의精神의 鼓吹者로부터

【過去】의 亡靈에對한 懷古者로 變케 하엿습니다。 新傾向派는、이모든 最良의것의 가장 徹底한 藝術史的 實踐者로서의 新興文學에의 길을 열면서 歷史의 前面에 나타난것이아닙니까? 新傾向派와 新興文學의 十年間의 歷史가 엇더한運命의길을 걸어 그組織的複雜이 오늘날엇더한條件下에 隕命하얏는가를말하기에는 넘우나지내치게 目前에現實은 똑똑합니다。 저는文學의 外的要因이 어찌 現在반지며 關心의對象이나고、이論文에 물은일이 잇습니다

【同感】 에잇흠으로도 이 가리고 잇지는못합니다。 말을 다시한번 되우는수밧게 아모舊關한解答을 그러지안습니까? 大體로 우리朝鮮文學과 가라 그生活의論初로부터 疾風과怒濤가운데서나서 그가운데서 成長하고 넘어지며 또이러나서 거러온 文學史는 새삼스러운듯 이問題를 朝鮮文學의 現在가가진 特性한 新現實과 生活이 混亂하고 萎縮하는것을 우리나 지내치는 感觸이아 넘어가요? 오죽 가시시여가는

【疾風】과 怒하게가는惡潮가운데서 오늘날까지의 모든善良의作家 藝術家가그리하여든것과갓치 이것으로부터 목적을감춘하지안코 마조서서 억개를비비며 衝擊하고 또는 未來로向한 不滅의希求의 情熱을 아울려 俱有한 偉大한藝術的情熱만이 이危機를여러나가고 同時에 自己自身의 藝術的創造의巨大한 步伐을 차졸수잇는것입니다

回……蒼空에드날리는가을……回

小品 季節의 表情 (3)

李善熙

집에서는 眼疾난 할머니가 눈에 파리만날리고 설사만난 어린애는 참외씨 석긴 똥물을 동이로 드러붓고 눈만 가진 녀편네들은 대림질에 땀을 비오듯 흘리고 이러한 너저분한 祖上과 背景을 가지고도 그똥만지 갓흔 避暑를 다녀야만한다는 理由는 업슬것이다。 만일 避暑다닐 資格을 論한다면 不肖本人이 第一人者에 該當할것이다。 그러나 나와 피서는 一世紀를 사이에두고 時期尙早다。 그러므로 나는 섯부른 避暑黨을 尊敬하지안는다。

×

그여름이 무르녹고 그여름이 가되 내게는 살진 호박꼿 한포기 보여주지안는다。 어대서 가장 無才하고 목청이 조치못한 매암이가 멕츨전부터 울어 귀엽다。 『이번젤닌』의 『하바네라』도 업고 『칼멘』의 戀歌도 업는 내 맘은 가난하다。 毒草의 汁을 마시고 南國의 娼婦속에서 숨을 모으든 그러한 꿈과 眼瞼가 업고서야 이 속여러진 감자맛갓흔 여름날은 無慈悲의 極致다。

×

종명치못한 사람가온대는 아직도 田園에 詩가잇고 牧歌가 잇는줄로한다。 『八月의 옥수수 밧흔 기름집니다。 넘이여 부엉새처럼 날아 내게로오소서』 이러한 文句를 느릐노코에 아모런 反省도업다。 그러나 어듸에 그러케 潤澤하고 長閑한 自然이 엇더란 말이냐。 멕츨전 나는 양말을 기우며 한숨을지엿다。 문득 故鄕의『뒷山』이 생각나서 人蹟미치지마프리를 조심스레 거더잡고 마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山으로갓다。 平地가 다된 古墳우에 동그랏케 안저 四方을 살펴보니 멀리 漢江이 無窮히 흐르고 질펀한들은 시원이 틔여잇다。 아름다우려면 그릴듯도한 情景이엿마는 그것은 차라리 悲慘이外에 아모것도 아니다。 피를 뿜는 하눌이 검붉게 점으는 黃昏이다。 山비탈에 버려진 얄울 쓰러뭇친듯한집들은 예은 덩치산처럼 검다。 굴뚝은 자조 洗濯을 직혀 옛습에 한번식이나마 烟氣가 도는것처도업다。

이러케 濕하고 不潔하니 傳染病은 마라노코 치르게 생겻내다。 萬里長江 저물은 썩업시 말너비라저서 사랑과 幸福을차자오는『로렌그린』의 銀色의배를 꿈꾸게는 못한다。 사람사는 世上에 저러케 寂滅만이 잇더라면인가。 生活을 위해 싸우려는 闘氣가 滿滿한 지게꾼 한아 차자볼수업다。 營養不足이 度를넘어서 死火山처럼 재만 남은 탓이랄가。 그래도 몃대남은 소나무들은 아직도푸르다。 허나 마음에서 각금 목을매여 죽는아즈머니나 아저씨들이 이不幸한 나무들을 곳잘 利用해서 걱정이다。 얼마전에도 바로 저기잇는저 나무에 웽양반이 목을매고 느러저 동내사람들의 설음을 짜냇다。 그것도 複雜한 自殺內容을가진것이 아니라 극히 原始的인 배가 곱하서 죽어간다는것이다。 『에구 에구 이러케까지 될줄알앗스면 사흘을 굶지안어 열흘을 굶어도 바아지를 아니 굶엇슬걸』 이것은 영감 죽인 마나님의 懺悔엿다。 목매죽은 생각을하니 머리가 하늘로 뻐치고 등허리가 오싹한다。 나는 고무신짝을 꺽구로 끌고 정신업시 달녀내려와 버렷다。 이러한 쓰린經驗이 잇는지라 나는 山비탈의 시원한 그늘을 차즐 용기도업시 이러케 無聊히 안저잇는 신세가 되엿다。

洛東江畔에서…詩

─昨年洪水에떠나간兄弟를생각하고─

梁雨庭

悠久한 세월의 神秘를
江물이 속삭이며 흘너간다

×

洛東江
朝鮮의 南方、우리의 故鄕을 끼고흐르는
너무나 情다운 어머니의 젓줄이다

×

七百里 넓고넓은 이江의 들판은
男房이 달닌 어머니가슴
그곳에 조고만한 마을들이잇고
마을마을의 傳說을실고 洛東江물이 유유히흘너간다

×

지금立秋가지나고 八月이아름다운데
철석、철석、江물이 모래언덕을치는곳
산도베이삭의 香그러운냄새가漂流하고
수수대에 江바람에 너울그리네

×

이제를作어 그들의 옛田園에우거저서
우오을엇더해 그들의家畜을그리고
江邊에 너러서잇는 모두라숨해서는
뫼꼬리들이 追憶의歌曲調를 읍조린다

×

그들은 떠나가면서 이江을원망하엿다
원망을 하면서도
情다운 이江의일홈을 가슴에삭이고떠나갓다

×

그들이떠나간지 一年이되려는두나
아아 이해에는 이러케豊年이들엇는데

×

떠나간戀人을 생각하며
멀건히 江물을바라보는 感傷된靑年이잇고
풀밧해묏굴며놀든 떠나간어린동무를 그리는
牧童의가슴에도 회포가 간절할것을

×

이것은 永遠히 우오울찻지못할
江村의悲劇

×

洛東江
떠나간 그들은 모다어데케나 지나는고
悠久한세월의 신비를
江물이속삭이며 흘너간다

米國의學生氣質 (2)

在加州 李定根

나는 몬저 米國의 大學生生活을 紹介코저합니다。 米國의 大學이나 東洋의大學이나 그內容에 잇서는 相異할것이 업는줄압니다。 비록 그學制는 다를지언정 學課에잇서는 갓습니다 구태여 다른것을 찾자면 米國의大學은 設備가完全하고 消費가 豊富한데다가 敎室에는男女學生이 나란히 석겨안젓는데、東洋의大學에서는 그러치못하다는것뿐이라고하겟습니다。 大學의內容이갓흔以上 學究를 目的하는 大學生活이 서로特異할것이 업슬것이웨다。 그러나

【大學】生活이라면 學究的生活만이 大學生活이 아니웨다。 學究的生活을떠나서 大學生私的生活도잇을것이웨다。 내가여긔서大學生活이라고한것은 그私的生活을指稱한것이웨다。 米國大學生活은 우리나라에新聞이나雜誌上으로 만히紹介되엿읍니다。 그뿐아니라 活動寫眞에서 如實하게 알리여젓다고생각합니다。 이제 더다시 紹介할것이 무어이 잇겟습니가。 그러나 大學生活에잇서서 私的生活은 學究的生活보다 더욱 香氣롭습니다。 敎室을 떠나서學課를 떠나서 大學生으로 반다시 實踐하지 아니치못할 日課가 잇습니다。 米國大學生의 이私的生活이야말로 우리나라 大學生의 그것보다 富裕하고『로맨틱』하외다。 그럼으로 大學校的見地 即學究的見地를 떠나서

【大學】生的見地 即私的見地에서 觀察한다는 前提를 두고 그들中에 섞기여살며 어든나의 見聞의 하나、둘을 적어보고저합니다。

『大學生』 몬저大學生을解剖하기로합시다。 勿論 私的見地에서웨다。

一年에도 가을과봄 即九月과 二月두차례에 맴머리바람에 저고리업시『썰즈』만닙고 勿論넥타이도매지안흔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진이모양이웨다)『뻐이』들과 깍근머리를 고불고불하게지저 광주리갓치 풀어헤치고 의복은살이삐여지도록 졸나입어서 그健壯한肉體美를 그대로자랑하며 그린선과 연주칠한입술을 가진 『껄』들이 數百名數千名식 大學校門을向하야 모여듭니다 그들의

【일홈】은 「껄」이웨다。 이러케 集合하는 뻐이와 껄을 나는 두部分으로 난호아보고십습니다。 첫재로는 저희들父母가 大學을 단녀가스니 나도大學에 오라는 學生들이웨다。 事實上 그들의 祖父母나 父母들이 大學을 創設하고 또는 大學에 단녓습니다 그럼으로 子孫되는저희들 할 通報으로 생각하는것이 一部分을 占하고 둘재로는 저희들의 父母가 일즉이 經驗치못한 機會를 獲得하기爲하야 大學에 오라는 學生들이웨다 그들의 先祖들은 荒漠한大陸을開拓하며 大學들을 創立하기에無數한 困難과 奮闘하지 안흐면 안되엿을것이웨다 그럼으로 現時그들의

【子孫】들이 가지는 幸福을 想像할 餘暇조차 업섯을것이니다。 그러나 今日의 大學은 그들의 子孫을 爲하야 모든施設을 準備하고 기다립니다 『뻐이』와 『껄』들은 大學敎育을 엇기爲한다느니보다도 차라리 기대리는機會를 잡으려고 大學에 왓습니다。 따라서 今日에『어떤大學에 단녓느냐?』하는 質問은 그들에게는 問題가 아니웨다。 이러한 背景을 동에지고 將來하는 幸福을 쫏부으며 大學校門을 들어서는 大學生에게는 學科와 同學이 아니그以上貴重한 課目이 업지안습니다。 勿論이 課目에 落第를못하면 엇재든 敗北者이웨다。 그中에서 몃가지를 적기로합시다。

地理까지가르치는 『로봇트』交通巡査

【부다페스트發聯合郵信】匈牙利의 首府 『부다페스트』市의 交通繁華한 十字路에는 近者에 危險한 交通巡査대신에 『로봇트』巡査가 出現하여서 『포ー스톱』의 整理를하고잇다。 손에는 電氣標識를 가지고 팔에는『포ー스톱』이라고쓴 때를 차고잇는데 그중에 자미스러운것은 등에 電話가 달녀잇는것으로서 萬一 事故가 생길때에는 누구든지 곳 그 電話로서 갓가운 警察이나 病院에 알녀줄수가잇게되여잇다。 더구나 그 『로봇트』巡査는 數個의 『포켓트』를 가지고잇서서 그속에는 數個의 外國語로 쓰여진 交通地圖와 交通規則이 드러잇스므로 地理를 알지못하는 旅行者나 觀光客은 마음대로 이것을 내여볼수가잇게되엿다고한다

生徒一人의 小學校

【가나다크發聯合郵信】『카나다・온타리오』州 가나다크地方의 第十六小學校의 理事는 最近 『온타리오』敎育局에 出頭하야 學校를 來年부터 閉鎖하겟다고 陳情하엿다。 그理由는 學校는『不景氣』때문에 敎師一人、生徒一人박게업는때문이라고한다。

『몰』博士 東洋旅行

【伯林發聯合郵信】極東問題의權威로서 만히 알려진 『오스트리아・쉐・몰드샤우』主筆兼東亞協會理事『모ー른』博士는 最近 極東의 旅行途上에 發程하엿다 『모ー른』博士는 六個月의 豫定으로 極東各地와 및 『오ー스트랄리아』를 訪問하겟다고한다。

外地異聞

獨逸의 植民地旗

【伯林發聯合郵信】最近 伯林의 海洋博物館에는 世界大戰때發存한 唯一한 植民地旗가 出陳되엿다。 이것은 獨逸이 租借時代의 靑島의旗인데『나치스』의 植民地復活要求가 傳하는때인만큼 伯林滯在의 外人間에는 非常한 興味를가지고 보게되엿다고한다

基督時代의 葬具發見

【미덴獨逸發聯合郵信】近者獨逸『하노ー바』州『미덴』에서 基督이 生存해잇슬때의 물건이라고하는 葬式用의 甁五十個가 道路工夫의손으로 發見되엿다 따라서 이附近에는 古代『게르만』時代의 武器가 發見될리도잇다고한다

海水浴에 機關銃護衛

【롱그아일랜드(紐育)發聯合郵信】米國屈指의 大富豪『박더ー빌트』家의 後嗣인어린『글로리아』孃은 最近伯母과 함께『롱그아일랜드』의 別莊에 避暑中인데 大富豪의令孃이니만큼 人質金을노리는者들이 언제誘拐해갈는지모르는까닭에 數人의探偵이 銃을 가지고 彼女의 身邊을 警戒하고잇다。 그리고 晝夜別로 彼女가 海水浴을 할때에는 海岸에 機關銃을 備置하고『모ー터뽀ー트』가 海岸을 警戒한다고한다

『첼루이웹스키ー』 手蹟陳列

中央博物館에는 作家『루ー콥스키ー』로부터 『첼누이쉐스키ー』가 『파니ー에프』에게 보낸편지와『네크랏소프』의『메텔부르그의 숲은 집』의原稿의 寄贈을바더다 前者는『첼누이쉐프스키ー』가 一八八九年에『파니ー에프』의 作品을批評해서보낸편지이고 後者는印刷前의 完全한『네크랏소프』自筆의 原稿이라고한다

碎氷船 『크랏싱』號

碎氷船『크랏싱』號는『우랑게리』島에 到着해서『로모제ー르스』灣에 碇泊하엿다。『우랑게리』島에의 航行은 流氷과 濃霧때문에 極히困難하엿다고한다。 그리고『콤이마』探檢의 碎氷船인『스모렌스트』號、赤色『빨지잔』號、『우릿키ー』號는 『콤이마』探檢을맛치고 歸路에 올넛다고한다。

第一回 全朝鮮男女音樂懸賞競演大會

開催時日 九月十九日(初選) 同二十日(公開豫選) 同卄一日(公開決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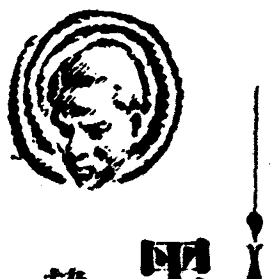
『申請期限』 八月末日까지(本社學藝部로) 『場所』……本社大講堂

『曲目』
『聲樂』 들어라 종달새、오ー내사랑、꿈을딸하서
『피아노』 베에산、뽀트쏭、소나타七二、마즈르카
『바이올린』 레겐데、안달류차、콜니드라이

番査員 『피아노部』 金永煥、朴慶浩、『바이올린部』 洪蘭波、桂貞植、蔡東鮮、『聲樂部』 玄濟明、金文輔、…『詳細事項追後發表』

콩쿨樂譜集定價五十錢(送料六錢) 本社庶務部에서頒布 振替京城五八七八番

主催 朝鮮日報社 後援 朝鮮音樂家協會



黑風 【112】

韓龍雲 作 金熊超 畵

해후(邂逅) 2

연극이 파하야 사람들은 나가기 시작하얏다 왕한은 그녀자의뒤를 따라가랴고 하얏스나 사람들이 복잡하니만치 도저히 그녀자의 나가는곳을 따를수가 업섯다 왕한은 여러사람을 헤치고 문밧게 나와보니 그녀자는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잇는 자동차를 타고 곳 떠나라는 중이엇다 그녀자의뒤를 따라가랴고 생각하던 왕한은 갑작이 절망이 되야서 엇지할줄을 몰랏다 그야말로 위기일발(危機一髮)에 잇는 왕한은 무엇을 생각하얏는지 만흔사람의 틈에 싸여서 그녀자의 자동차 잇는 근처로 갓다 『탕!』 하는 총철포 소리가 나더니

그녀자의 자동차 뒤바휘에 탄환이 마지며 대소동이 이러낫다 자동차는 일시 정지를하고 구경군이 모아든다 경관이 온다 신문기자가 온다 대혼잡을 이루엇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사람은 조금도 상한일이 업고자동차 바휘만이 조금 상하얏스나 운전하기 에는 별로 고장이 업슬만한 정도엇다 경찰은 한편으로 그 녀자를 호송하야 보내고 한편으로는 범인을 수사(搜査)하얏스나 종적이 업섯다 여러사람들은 그일에 대하야 공론이 불일하얏다 『그게 웬일일까 도적놈이 그랫슬까』 『아닐세 도적놈이 여러사람이 잇는중에서 뭐현포를 노아서 무엇을 하단말인가』 『그럼 그게 무에람』 『아마 혐의진 사람의 짓인가지』 『그것보다도 연애관계가 심상찌구지 얼골이 똑똑하니까 그러키가 쉽쥐지』 『무슨일인지 알수잇나 나중에 봐야알지 쓸데업는 소리들 그만두고 가서 잠이나자세』 이러케 수근거리는 사람들은 차차 허러지고 시가를 비치는 전등만이 고요한 밤을 지키는대 잇다금 경관의 칼소리가밤의 적막을 깨칠뿐이엇다

이튼날 각 신문에는 아래와 가튼 긔사가 게재되얏다 『어제스밤 십이시경에 ○○극장 압헤서 피쓰톨로 자동차를 사격한 일이 잇섯는데 피해자는 팡동에 거주하는 방년 이십일세의 호창순양(胡昌順孃)으로 방금 항향에와서 대양여관에 류하는 중인대 마침 ○○극장에 연극구경을 갓다가 도라가는 길에 재 삼백팔십구호 자동차를 타고 방금 운전하라는 지음에 어떤자에게 피쓰톨의 사격을 당하얏는대 다행히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뒤ㅅ바휘만 조금 상하얏스나 흉손해는 업다 경찰은 시각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범인을 잡기에 노력중이나 범인의 종적은 오리무중(五里霧中)에 잇스므로 물론 그사건의 원인도 알수업스나 호창순양은 세상에 드믄 미인이므로 흑은 연애관계가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더라』 이러한 긔사가 각신문에 발표되매 각청년남녀에게 적지아니한 충동을 이르켯다 왕한은 그긔사를 보고 가만히 우스면서 스스로 자기의계획이 성공되얏슴을 깃버하는 동시에 창순에게 대하야 양자(孃字)를 노은것을 보고서 그가 아직 처녀로 잇는것을 알게되야서 신경계통에 변동이 생길만치 깃버하얏다

전날밤에 그녀자의 자동차에 피스톨을 노은것은 다른사람이아니라 왕한이엇다 왕한은 그녀자를 따라갈수도 업고 그대로 보낼수도 업스므로 그러한 사변을 이르켜서 다시 맛날수잇는 기회를 만들자는 아름다운모험행동(冒險的行動)이엇다 여러사람이 잇는중에서 녀자의 자동차에 총을 놋는것은 적지아니한 사건이므로 그사건으로 말매아머서 그녀자의 종적을 알수가 잇슬리라는 생각으로 그리한것이며 왕한의뜻과갓치 그녀자는 일이 신문에 발표되야서 그녀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게된것이엇다

待望의 象二浦港 荷揚場築造着手

工費萬八千圓으로

【象二浦】지금으로부터 삼십여년전에 축조하엿든 겸이포항의 하양장(荷揚場)이 붕괴되어 일반운민간에 그개축을 부르짓고잇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당해도당국에서도 그개축의 필요를늣기고 파반 공동하양장개축공사(共同荷揚場改築工事)를 도내각 청부업자에게 입찰식혓든바 겸이포읍 명치정(明治町)에 사무소를 둔 청부업자 강조(姜祖)에게 총공비 일만팔천구백원으로 락찰되여 불일간 착수하리라는데 동공사는 매립(埋立)일천육십육평미ー돌에 하양장은 계단식으로 총연장(總延長)이륙십오미ー돌이나되는 최신식 공사라는바동공사가 완성되는날에는이천만원이라는 실로 놀나지안을수업는 어청난 도내 최고의 무역액(貿易額)을 가진 동항의 발전도 실로 막대할바만할것이라한다 공사준공기간은 명년 삼월삼십일이라한다

××隊人夫罷業 圓滿解決復業

【鎭海】진해××대(鎭海××隊) 공사장에서 대구방면에서 모집하여온 인부 사십명이 임금문제로 동맹파업을 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파업당일부터 진해서의 알선으로 현재 임금회고 칠십전을 팔십전가량으로 인상하는동시에 매일 밥갑 삼십오전을 삼십전으로 인하하도록하야 지난이십구일부터 전부취업케되얏다한다

小鹿島更生園에 新患者千名收容

今秋第一期計畫完了同時

【光州】소록도갱생원(小鹿島更生園)은 총독부당국으로부터 금번긔제를개정하야 사업비 삼십이만원을 증자하고 의관(醫官)두명 서긔두명 약제사한명 간호부장두명 간호부육명 간호수십명을 증원하야 금추에신환자일천명을 수용하기로 하야 제일긔 계획을 완료하리라는데 전남에 산재하여잇는 뢰환자 사백팔십구명은 금번계획으로 전부이송케 되리라고한다

朝鮮青年會主催 常識講座開催

本報支局後援

【奉天】당지 조선청년회에서는 본보 봉천지국의 후원을어더 불원한장래의 필연적결과인 치외법권철폐(治外法權撤廢)에 관하야 실현후 우리재만동포들에게 파급될 영향여하와 기타력사적으로 삼학사유적(三學士遺跡)에관한등 그외에도 수종의 상식강좌를개최하게되엿다는데 문제가 우리들의 당면한중대문제이니만치 동강좌의 효과여하는 자못 주목되는바 본강좌의 시일장소등은 아래와갓다한다

◇時日 九月二、三兩日間每夜七時半부터
◇場所 西塔幼稚園
◇演士 鄭寅寬 李定禎

그女子의一生 (197)

春園 作 / 夕影 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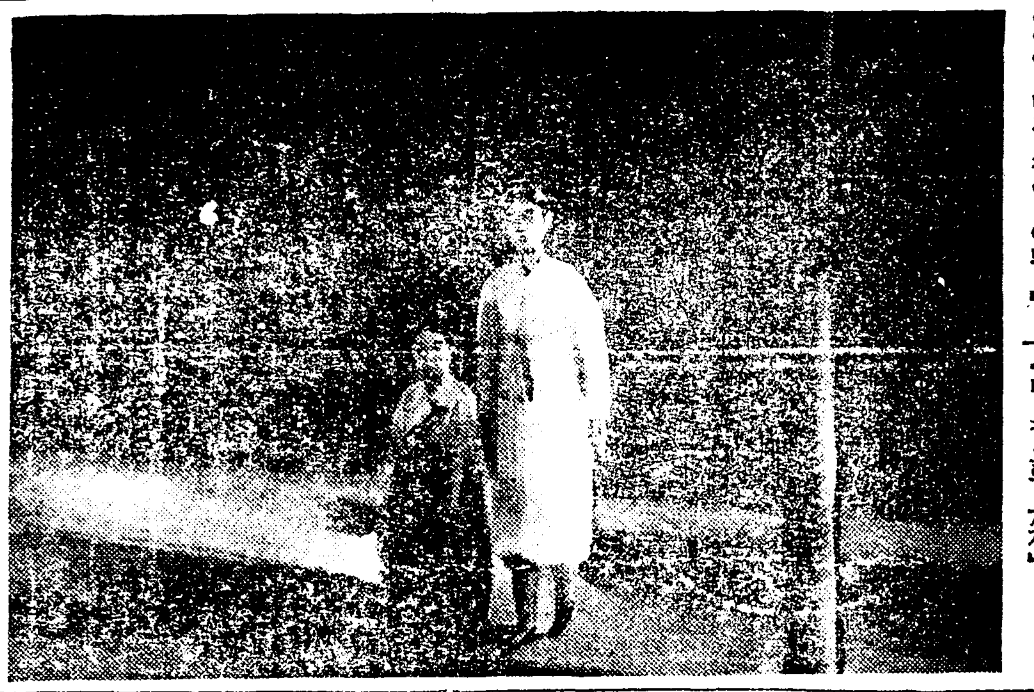
방랑편

겻헤 가까이 온 순이의 머리를 만지며 금봉은,

「순아 너의 집이 어듸?」

하고 순은 부끄러운드시 고개를 숙엿다.

「너 집으루 가자」



하고 정답게 물엇다。

「자안골이야요。남의 행랑입니다」

하고 금봉은 순이를 압세우고 경복궁 압흐로 지나서 자안골로 향하엿다。

「나 오늘은 너의 집에서 잘테다」

하고 금봉은 길을 가면서 순이에게 청하엿다。

순이는 대답이 업섯다。순이도 금봉이가 다른 서방하고 살다가 본 남편한테 쫏겨서 야단 만난줄을 알기 때문에 금봉의 정경을 모르는것이 아니지만은 그러터라도 그러케 호강하던 금봉이가 냄새나고 빈대끓는 행낭방에서 잘까가 의문이엇다。

순이는 어떤 허름한 집 찌그러진 대문안에 섯다。그리고는 대문에 입을대고 안에 들릴까바 조심하는 목소리로、

「어머니이、어머니인」

하고 두어소리 불럿다。그래도 대답이 업서서 순이는 대문을 달깍달깍 흔들엇다。

안팍 고달픈 일에 곱아떨어진 순이어머니는 죽은것처럼 잠이 께지아니하엿다。더구나 또약볏에 비지땀을 흘리며 모군을서던 순이 아버지는 누가 목거가도 모를지경이엇다。

얼마만에야、여편네의 졸리는 소리로、

「거 누구야?」

하는 소리가 들렷다。

「어머니 문좀 열어요」

하는 소리를 그제야 알아듯고서 소리 안나게 대문 빗장을 열면서、

「순이냐。웬일이냐。주인ㅅ집에서 쫏겨낫니?」

「밤ㅅ중에 웬일이냐 무슨 짓을 햇길래 이 밤ㅅ중에 쫏겨낫서?」

하다가 금봉을 보고、

「아씨 웬일이세요?」

하고 놀라서 뒤로 물러선다。

금봉은 대문안에 들어서면서

「오늘 밤 좀 재와주우」

하엿다。

「웬 일이세요?」

하고 순이 어머니가 어리둥절하는것을 순이가 가만히 어머니의 엽구리를 찔럿다。

「어떠케 이런데서 주무시나?」

하고 순이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서 성냥을 차저서 석유ㅅ등잔에 불을 켜놋는다。금봉의 눈 압헤 전개된 광경은 이러하엿다。——

오십이 넘은 수염 조곰나고 수척한 사내가 우통을 버서놓고 죽한 배를 들먹거리며 코를골고 그 겨테는전신에 먹칠을한드시 시컴한 딸구세되는 사내아이가 배만 가리우고 뚜러누엇고 또 그 담에는 젓머이 하나가 벼개에서떨어저 자고 벽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회를 발랏스나 조희가 모도 흙 빗치 되어엇다。그리고도 성냥상자、석유상자 가튼 궤짝이 이를테면 장대신으로 구석에 포개 노혓다。

「여보、여보」

하고 순이 어머니가 남편을 흔들어깨우는것을 금봉은 손을 흔들어서 막고 방으로 들어갓다。

순이 어머니가 빼저나온 자리도 안보이던 방이언마는 그래도 금봉이와 순이가 다 두러누울수는 잇섯다。

축축한 장판은 찻다。금봉이는 특별대우로 주는 때무든 벼개우에 핸드백을 노코 손ㅅ수건을 덥허서 벼개를 삼엇다。모기가 무서워서 문을 다다노흐니 냄새나는 공긔에 숨이 러터 막힐것 갓고 잇다금 뚝경업는 요강에서 지린내가 금봉의 코를 찔럿다。

그러나 그것도 약과엿다。불끄고 한참 누엇스려니 모기는 귀미트로 웽웽거리고 빈대는 목덜미를 물어뜨덧다。금봉의 등으로 다리로 배로 스물거리는것은 벼룩인지 거르마지 모르지마는 처음에는 손으로쓸어도보앗스나 나중에는 단념해버리고 말앗다。

빈대벼룩이 아니기로 잠이들 금봉은 못은 아니다。자정넘은 밤ㅅ중에 갈곳이 업스니 밤이 새기를 기다리잔말이다。

信賴할수잇는純正한 頭痛藥을選擇하라!

頭痛의解消와 頭腦의疲勞恢復에

現代科學은 참으로 말할수업슬만큼進步하얏다 따라서 頭痛藥이라할지라도 單只頭痛만을 鎭靜식힐뿐으로는 現代에잇서서 完全한 頭痛藥이라할수는업다 그것은頭痛을治療식히는同時에 頭腦의疲勞를 回復식히고 朦朧한머리를爽快明朗케하는 作用이업스면 頭痛藥의 使命을 最後까지 完成하엿다 할수가업다

ノーシン은 이 目的下에 創製한 新頭腦藥

一、「頭痛을 곳치는作用은 勿論이고」 同時에 또一步前進하야서

一、「頭腦의 過勞를 回復식히는作用」을 가지고잇다

이頭腦의 疲勞回復作用은 다른 單一頭腦藥에 서볼수업는 ノーシン 獨特한 자랑할만한長點을가지고잇다。이런二大作用을 한게모워서야 비로소 偉大한 綜合的効果를 充分히發揮할힘이나는것이다 따라서 ノーシン은 頭痛뿐만안이라 左記의症狀에 가장잘듯는効果를 나타내는것이다

適應症	
	頭痛、偏頭痛、頭腦過勞
	頭重、頭內朦朧、精神憂鬱
	眩暈、宿醉、船車멀미

効力느진것은無効에近似하다

頭痛藥에 가장 必要한條件은 一分間이나一秒間이라도 빨이効力이 나타나서 그견딜수업는 頭痛의괴로움과 不快한 頭重朦朧等에서 一刻이라도 빨이 버서나게하는 作用이다。이것이 업스면 아무리 萬가지 理論을 느러노트라도 無効나相等한것이다。

ノーシン이 服用한後 참으로 눈깜박할새에 効力을 發揮하는것은 임의 天下에 定評이잇다 「藥도 ノーシン만큼 빨이들으면 조켓다」고愛用者들이 늘 激賞感謝하고 잇는것을보드라도 明白하다。더구나 胃腸等에 障害업고 無論머리를 麻痺식히는것가튼것은 絕對로 들어잇지안음으로 安心하시라。

납분作用이업고安全하다

許多한 頭痛藥中에는 往往胃腸等을 壞傷케하는것도 잇는듯하나 이런것은 아무리 頭痛에 잘듯더라도 模範的이라 자랑할수업다 ノーシン은 이런거와는 全然달너서 元來胃腸等을傷할만한 成分이 들어잇지안코 다른頭痛藥과 갓치일부러 胃腸藥을 加味하야 胃腸障害를防止할必要는 업는것이다。이야말로 ノーシン이 純正한 頭痛藥으로서 他에 代用藥업다고 자랑할點으로서 實로 엇기어려운 點의하나다。

最高標準의 頭痛藥 ノーシン

노 ー 신

藥質은優秀 價格은低廉

ノーシン은完備된 衛生的工場에서 一一히嚴重한 試驗을거처서된 原料와 多年間經驗熟練된技術에依하야 製造된科學的優秀品이다 ノーシン의 眞價가認定됨에따라서 愛用者도激增하야 至今은日本全國은 勿論、滿洲、中國、南洋、歐米大陸等에까지도 輸出되야 日本代表的頭腦藥으로써 多大한 賞讚을博得하고잇다。이와가치 工場도 合理的生產의 機構를擴大하야左와如한 低廉한 藥價로提供하게된다

藥價	
四回分…二十錢	十三回分…五十錢
七回分…三十錢	廿八回分…一圓

★全國著名藥店又는데파ー트藥品部에잇슴

名古屋市東區京町

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頭痛藥의 理想條件

効果가確實코

効力이빨느고

惡作用업시安全코

藥價가低廉한것

頭痛藥에胃腸藥을配合하는可否

胃腸이 健全하다고한것은 結局 胃腸이普通狀態로잇는것을 말한것이다 胃腸에 아무異常하다는늣김이업슬時가 即 健全한胃腸임으로 이以上藥으로 더 强하게 할수도업고 또 必要도업다

元來 胃腸이 弱하다던지 其他 故障잇는 時에 이것을 普通狀態로 回復케 하는것이다。萬一 胃腸이 健全한데다가 胃腸藥을 常用한즉 胃腸은 그런所用업는힘을 빌지안트라도 只今까지 充分히 作用을하던것이 自然 그藥의 힘을 빌이는 習慣이부러서 結局 胃腸自身이 本來가지고잇는 貴重한 機能을 도리혀 弱하게하는 傾向으로될것은 當然하다。

다른 頭腦藥을 配加한이잇는듯하나 이原理를 生覺하면 이것을 結局必要업는 餘分의 胃腸藥을 無端히 呑下하는 結果가 됨으로 漸次 胃腸은 消化力을 根本的으로 弱하게한다는납분 原因이된다。

現在 醫師가 藥을處方할때에 胃腸을傷할걱정잇는藥劑인 境遇에는 胃腸藥을 添加하야 胃腸의保護를하나 그他에 必要한以外에는 胃腸藥을 添加하지안는다。일로써 밀우워 보드라도 健康狀態의 胃腸에는 胃腸藥이 必要치안는것은 다알바가안입닛가

ノーシン에 胃腸藥이 加味되야 잇지안는것임으로 그러한걱정이 조곰도 必要가업다 即胃腸藥을 配合하지안트라도 胃腸을 害하지안는 頭痛藥이야말노 眞實한 意味의「完成된 頭痛藥이다」라고 말할수가잇다

經濟解說 公布된殖産契令 그動機와眞意? (一) 申泰崎

이미 「殖産契令」이 制令으로 公布되고 다시 不遠에 그實行細則도 發表케 될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殖産契令의 全文 二十一個條만 가지고는 그것을 理解키 어려운 點이 만타는 말이잇다 또는 아즉 施行細則의 發表가 업는만큼 그全貌에 對하야 말하기가 좀일를지모른다 그러나 오늘에 殖産契令을 보게까지 이른 그動機 또는 이 制令의 眞意가 那邊에잇는가를 살필 必要가잇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그條文中 重要한 點을 몃가지 들어서 解說코자 한다

×

처음에 殖産契令을 制定할 必要가 잇다는말이 생기게된 것은 다음과가튼 經路를 밟어왓다고한다 即 日本內地의 産業組合法에 準據하야 大正十五年一月에 制令第二號로써 朝鮮에도 産業組合令이公布되고 同年三月로부터 施行되여 오다 그런데 目下에 잇서서 産業組合의 總數가 七十餘個所에 不過하고 또는 그成績이 매우 不振의 狀態에 빠저잇다 이와가티 産業組合의 成績이 不良한理由가 어데잇는가 하면 日本內地의 産業組合의 業務範圍는 信用、販賣、購買와利用의 四種으로 되어잇스나 朝鮮의産組는그中重要한信用制度를 빼여노코 오즉 販賣、購買와 利用의 三種에 限케된 것을 그큰 理由로 든다 그래서 當局者들은 어떠케 하면 産組를 振興케할수잇슬가 함에 對하야 머리를 석엿다

이것이 昨年에 財務局으로부터 金組를 背景으로한 小産業法人의組合을 맨들어가지고 이것으로써 不振의旣設産組에對한 積極工作을 삼자는主張이비롯오 생겻다 이것이 아마도오늘에 公布된殖産契令이 처음으로發端된 動機라고할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小産業法人設置主張은 順調로 進捗을 보지못하고 만흔曲折이 생겻다 이것은 무슨까닭이엇든가 하면 다음과 가튼 財務局을 中心으로한 殖産、農林의 三局間에엉크러진 衝突을 보게된 때문이다 即

▲産業組合은 殖産局 商工課의 所管임으로 만약小産業法人을 맨들境遇에는 이것은 當然히 殖産局의 所管일에들 것이라는 主張을 하게되엿다 또 一面으로 從來로부터 産業組合은 農村 關係가 거의 그 全部로 되고 잇슴으로 이것은 農林局으로 移管할것이라고力說하여 온農林局에서는 이機會를 다서 産業組合과 小産業法人을 自局의所管으로하라는要求가 만케되엿다 그러치만 財務局에서는이 小産業法人을 自局所管의 金組傍系分子로 하라는데 그主張을 두마음 어데까지 이他局의要求에 反對를 表明하엿다 이처럼 小産業法人의 設置에對하야 三局關係가 複雜하여서 容易히 그 解決을 보지못하고 相當히 紛糾가 거듭되엿다

×

이러다가 結局에는 今井田政務總監의 決裁로 殖産局의意見을 다내어가지고 비롯오 그 小産業法人은 完全히 殖産契라새로운名稱으로變하여가지고 八月卅日附로 그制令의公布를 보게되엿다 그런데 이條文에對한解說에 드러가기前 먼저 밝히지안흘수가업는點이잇다 即 이殖産契는 産業組合의不振에對한補强工作만으로 볼가 또는殖産契는 産業組合에 比하야 그技能이 무엇이 달른가 함이 가장 關心을안할수업는點인데 이에對하야는 大體두가지로볼수가잇다

첫재로 産業組合은 業務中 가장成力을 가지고잇는信用制度를 缺如하얏슴 [illegible] 리의業務의가튼것이잇다 그래서 小産業法人의 殖産契를 맨들어가지고 이곳에 金組의信用制度를 끄러너허 間接的으로附加케하라는것이라고 볼點 둘재로 오늘까지金組는 産業組合에 比하야 長足의進步(이것은 表面에 나타나고잇는 數字)를보고잇다 그러나 이亦是어느때까지 單純히 信用制度알에서만 나아감에는 만흔支障이 생길念慮가잇고 또는所謂農村振興運動이 일허나고잇는 이機를다서 金組의信用制度를 좀더 堅固한地盤에 세우기爲하야는 産業組合의業務를 그대로옴겨다가놋는小産業法人의 殖産契를 맨드는것이 가장必要하중을 늣기게된點이다(續)

朝鮮人府內商工業 數字가示한不振相

生產販賣額은未滿七十分一 業者數는거의半數

朝鮮에잇서서 最近에 이르러서 大商工業이 簇出하야 中小商工業은 一層困境에 빠지고잇서 一般의 關心點이 되어잇는바 京城府 勸業係에서는 現今 中小商工業이 果然 어떠한 處地에빠저잇스며 事實에잇서 困境에빠지고잇다하면 그程度는 어떠한가를 調査하야 對策을 樹立키 爲하야 그동안 屢次 起案한바 잇섯스나 豫算關係로 뜻을 이루지못하고 잇든中 이지음에야 겨우 五人의 係員이 一個月間걸리어 納稅帳簿를 土臺로 京城府의 商工業者數及 그 生產販賣額을 調査하얏는데 商工業者數는 朝鮮人 六千九十六人 日本內地人 六千百三十五人 外國人 三百六十三人 計 一萬二千五百九十四人이고 그生產販賣額은 朝鮮人一億二千五百二十六萬一千四十六圓 日本內地人八十九億六千七百九十五萬七千九百七十四圓 外國人 三百二十四萬六千六百八十四圓 計 九十億九千六百四十六萬五千七百四圓으로 朝鮮商工業狀을 總數에比하면 業者數에잇서는 거의 半數에 達하나 生產販賣額에잇서는 七十分의一도 못되는 極히少額으로서 朝鮮人의 經營이 얼마나少規模이오 不振인것을 數字로 說明코잇다 한다 이제 그詳細한것을 數字로 示하면 如左하다 (註=이調査는納稅者에限하고 免稅者는 包含치안엇다)

▲國稅營業稅를納하는者

日本內地人

業別	人數	金額
物品販賣業	[illegible]	[illegible]圓
製造業	[illegible]	[illegible]
其他의業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

業別	人數	金額
物品販賣業	[illegible]	[illegible]圓
製造業	[illegible]	[illegible]
其他의業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外國人

業別	人數	金額
物品販賣業	[illegible]	[illegible]圓
製造業	四	九七、〇〇〇
其他의業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計

業別	人數	金額
物品販賣業	[illegible]	[illegible]圓
製造業	[illegible]	[illegible]
其他의業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圓

▲特別營業稅를納하는者

日本內地人

業別	人數	金額
物品販賣業	[illegible]	[illegible]圓
製造業	一四	[illegible]
其他의業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

業別	人數	金額
物品販賣業	[illegible]	[illegible]圓
製造業	一四	[illegible]
其他의業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外國人

業別	人數	金額
物品販賣業	[illegible]	[illegible]圓
製造業	一	一〇〇
其他의業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計

業別	人數	金額
物品製造業	[illegible]	[illegible]圓
製造業	[illegible]	[illegible]
其他業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法人關係日本內地人

業別	人數	金額
物品販賣業	[illegible]	[illegible]圓
製造業	[illegible]	[illegible]
其他業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

業別	人數	金額
物品販賣業	[illegible]	[illegible]圓
製造業	[illegible]	[illegible]
其他業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外國人

業別	人數	金額
物品製造業	七	[illegible]圓
製造業	—	—
其他業	—	—
合計	七	[illegible]

計

業別	人數	金額
物品製造業	[illegible]	[illegible]圓
製造業	[illegible]	[illegible]
其他業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合計

日本內地人

業別	人數	金額
物品販賣業	[illegible]	[illegible]圓
製造業	[illegible]	[illegible]
其他의業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

業別	人數	金額
物品販賣業	[illegible]	[illegible]圓
製造業	[illegible]	[illegible]
其他의業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外國人

業別	人數	金額
物品販賣業	[illegible]	[illegible]圓
製造業	五	九七、一〇〇
其他의業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計

業別	人數	金額
物品販賣業	[illegible]	[illegible]圓
製造業	[illegible]	[illegible]
其他의業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朝鮮米生產費 原簿檢討續行

外地米生產費調査會는 各委員幹事의 乘務關係로因하야 八月上旬부터 休會되엇는데 八月二十三日부터 日本內地側幹事의손으로 朝鮮生產費原簿檢討가 續行되고잇다는旨 總督府에 通知가잇다 그것은 十月中旬까지 日本內地側幹事의 손으로 再調査를 할豫定이어서 右檢討終了後再會할豫定이라한다

製糸一割操短 九月一日實施

女工失業約三百名

朝鮮製絲協會에서 協議한 一割操短은 各製絲工場이 一齊히 九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 되엿슴으로 同協會에서는 三十日各工場에 對하야 製絲機械의 封印用紙를 發送하엿다 따라서 各道의 委員은 三十一日 各工場에 赴하야 封印을하기로되엇는데 이操短에依하야 能率이나즌 女工又는 自發的으로 辭退하는 女工等을 合하야 全朝鮮에서 失業하게될 女工은三百名에 達할 模樣이며 또今年度春蠶共販 出廻數量은 約十五萬石 가량으로 秋蠶出廻豫想數量은 五、六萬石 豫想이라한다

南洋海運營業開始

【神戶電話聯合】南洋海運은 豫定과가티 九月一日부터 營業을 開始하게되엿는데 九月中의 配船日程은 左와如히決定 最初의 三隻은 近近配船하기로되엇다

一日丕喜丸(石川) 二日카나다丸(商船) 三日체리반丸(南洋郵船) 十二日 에리丸 十六日 매드로스丸 廿二日크라이드丸 廿五日마카사丸 卅日名古屋丸

產業調査委員會 經費五萬圓容認

明年度에設置될듯

朝鮮의 產業政策確立을 爲하야 計畫된 朝鮮產業調査委員會는經費五萬圓이 財務局의 査定을 通過하얏슴으로 明年度初 新設되게되엇다 右調査委員會는 日本內地 朝鮮 滿洲產業界의 連絡統制를 中心으로 朝鮮產業界의指針인 使命을 갖고잇슴으로 今井田政務總監을 委員長으로 日本內地 朝鮮 滿洲各部門의 權威를 網羅할터인데 建設에서 統制時代에 드려가려는 朝鮮產業界의 最高諮問機關이 되리라한다

秋期農改低資 融通配定決定

總額百二十四萬圓

十年度 秋期農事改良低利資金融通에 對하야는 過般來 總督府와 殖銀、東拓間에 協議中이든바 左와如히決定 今年融資額은 前年五十四萬圓의 倍額 百二十四萬二千七百七十五圓으로 그內譯은 東拓 四十九萬八千圓 殖銀七十四萬四千圓으로 그配定은 다음과 갓다 (單位圓)

肥料資金	九七、四八六
農具資金	五七、九〇五
產米組合	一〇、〇〇〇
倉庫	二五、四二〇
組合機合	一五、六六四
耕牛資金	一六二、三〇〇

滿鐵社債發行

【東京電話聯合】滿鐵大淵理事는 三十日 興銀에 曹米副總裁를訪問 今年度 第二回分社債 三千萬圓의 發行條件에 對하야 協議한結果 前回同條으로 年四分三厘로 兩者의 意見이 거의一致되엇슴으로 來月初 신지게ー트團의 承認을 어더 十二、三日頃 發行하기로 되엇다

農業倉庫 倉出便法

總督府에서는 三十日東拓、殖銀等의 各米穀低資扱業者를 總督府에招致하야 農業倉庫에 保管하고 各金融業者로부터 同倉荷證券擔保로 金融을受한後 一般農倉利用者가 境遇에依하야 一部倉出하야 賣却할時의 擔保證券提示問題를 協議한結果 擔保되어잇는 倉荷證券은 提示치안허도 利用者로부터 請求書를 提出하는때는 便宜倉出을 認하기로되엇다한다

金組의資金激增

組合員百三十萬人 比前年二十萬人激增

朝鮮金融組合聯合會의 七月末現在 預金은 一億三千六百三十四萬圓 貸出 一億七千七十二萬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預金은 二千八百九十二萬圓 貸出 二千八百八十萬圓의 激增을示하엿스며 貸出이特히 增加한것은 農村景氣의 反映인 同時에 組合員의激增이 主要原因이라한다 即現在組合員數는 約百三十萬人에 達하야 前年보다 二十萬人의 激增을 示하고 一人當百圓의 融資를한다고 假定하야도 二千萬圓을 要할것으로 金組資金의增加한 事情도 이것으로 推測할수잇다

紡績聯合會 操短擴張

十一月以後

【大阪電話聯合】十一月以降의 紡績操短委員會는 來月十日頃 開催하기로決定되엇는데 十一月以降 操短擴張論은 相當히有力하야 九月 十月兩月의 操短率 二割一分二厘外에 五分擴張은 新鍾制度를 行하지안코는 不可能함으로 聯合會에서는 過般來 加盟各社에 新鍾制度問題에 關한意向을 聽取中이든바 各社가 大體聯合會의 左記骨子案을 支持하고잇슴으로 結局新鍾에關한 操短率을 決定한後 十一月操短率을 決定하게되엇다

第一種 昭和七年十一月以降 昭和十年十月末까지 運轉開始의 新鍾

第二種 昭和十年十一月以降 運轉開始의 新鍾

下旬對外貿易

出超二千餘萬圓

【電通東京電話】大藏省發表=八月下旬 對外貿易槪算은如左하다 (單位千圓)

輸出	九一、七〇二
輸入	六五、一四八
合計	一五六、八五〇
出超	二六、五五四

米日爲替暴落

【紐育卅日發聯合】卅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 比較하면 賣 廿九卅九仙으로 六仙低 買 廿九卅六仙으로 六仙低

▲東京爲替(卅一日)

對米 賣廿九弗十六分五 買廿九弗十六分七

對英 賣一志二片廿六分三 買一志二片卅二分七

▲大阪爲替(卅一日)

對米 賣廿九弗十六分五 買廿九弗十六分七

對英 一志二片卅二分五 一志二片卅六分三

商況 三十一日

株式 月末戰도 無味

前場區區 月末 最後立會의 今日은 米日爲替 六仙低이나 十九弗三十九仙이나 別無好轉이라 平凡立會이다가 引際日產만 强調를 示하얏고 結局區區商狀으로 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二十錢高인 百四十二圓七十錢 日產八十錢高인 七十六圓四十錢 大新二十錢高인 八十七圓九十錢 新二十五圓八十錢에 各大引되고 朝取 六十一圓七十錢 日魯五十四圓丁 帝人百二十三圓丁 日鐵新三十九圓六十錢 鋼管新四十六圓丁 安取七圓五十錢 拓新十圓四十錢이엇섯다

▲東新 一四二.八〇(寄) [illegible]

▲日產 [illegible]

後場休會 後場은 例休인데 貿易出超激減도 不拘코 大阪短期氣配가 少堅程度임으로 當地氣配도 堅合이나 新甫別無期待

朝取賣買高增加

今期初頭의 株界의 變動과 米價의 昂騰으로 朝取今期六、七、八三個月間의 業績은 米穀部五百十萬石 證券部五十五萬枚를示하야 前年同期에 比하면 米穀百五十萬石、證券 十二萬二千枚

取組膨脹時代

强弱對立으로

秋高期待가 엇지도안흠에不拘코 또市勢自體도 强하다면 强하게 볼수잇슴에 不拘코 積極的으로 買氣가 繼續되지안흠은 웬까닭이라 그것은 內外事情이 複雜性을띠어 一本調子로 好市勢를 演할수업는때문이니 豫欺의 折衝이 어떠케될지? 歐洲天地가 어떠케되어가는 세음인지? 米國景氣가 어데까지 發展될것인지? 北中經濟提携가 어느程度로 結實될것인지? 아즉은 確斷할것이 못되는만큼 사고저하들수업는 모양인바 强氣的解釋에依하면 總體的으로 步一步押目을만들고는 上向步調를取하야 價位를高上식히리라고볼수잇고 一氣로올르지안흔만큼 그만큼穩健하고 不遠間 一大爆發이 잇고야말것이라하야 그前提工作時代로보는모양이다 이리하야 民買主는軟派와 押目買로보는 硬派가對立되어 秋落?秋高를 目標로不知不識中 取組가 膨脹되어갈것인데 그뒤가如何?

市場六感

株

月終立會는 日產少堅外는 平凡이오新甫期待도別無▲爲替低도 無響이오 下旬出超二千六百餘萬圓도無好感?▲一氣로 올르지못함에 對하야 强氣는 말하되 浮調가업스니 穩健다하고 ▲弱氣는 말하되 더올릴힘이업는때문이라하야 各其有利하게 解釋하는모양▲過去 悲觀訂正은 一巡되고 其後의 買付는 反落에 依하야 피장패장이되고 지금은 民買押目買의 對立狀態▲市勢가 揉合일수록氣迷가 크고 目前的으로 蠢動하야『자부쓰기』가 만허갈뿐 ▲今後材料如何에 依하야 上下動이잇슬것은 勿論이나 懸殊한 强弱觀對時로 取組가늘어갈수록 그上下動의 幅이크게될것도 가튼바 果如何?

米

阪地는 去益 强調를 帶하고 當地는 此는 仕手의 關係로 依然伸悩 ▲堂島市場에는 猛將이엇다 ▲田中貞의 買物이 幅湊하고 當地有力側及 東京 小種一派의 賣物이 殺到 ▲今日의 現象으로 보아서는 賣方의 勢力이 絕對優越하나 그러나 今後에는 발끗이 訂正市勢가 展開될것을 豫期 ▲그런데 中限에 入하야 賣方의 作戰으로 又復 一落을 告할지는 몰으나 그러나 大勢가 昂騰하는때는 人爲的으로 엇지못할것을 記憶해둘일 ▲朝鮮米作은 平年作이라하여도 過言이아니나 日本內地米作은 平年作도 못될모양이야▲大凶作後의 平年作은 그다지 樂觀할餘地가 업슬모양이오 結局 前途大勢는 昂騰一貫이 아닐지몰라▲何如間 新米時代의 一落이잇다할지라도 明年度 端境期는 今年보다도 又一層 在米薄을 可知?

秋高지레閉幕? 年末이나바라자

中旬으로부터 下旬에걸친 反騰材料가그럿다는것 日米兩景氣恢復이니 日伊紛爭 日伊에戰雲이니 米國景氣前期待이니 日中親善이니하야 秋高目標로 買하얏슴도 當然하다 小口筋의 踏上도 無理가아니엇스나 昨今에至하야 머리가무거웁고 擧合인골이 綻膨하야보이는것갓고 强氣들의 期待는 所謂二期戰이란것도 잇슬지말지 未到이다 如左히 큰市勢가업다고보는觀測이이섯다 좀더 高價가잇슬것을 알엇더니意外로 물정도잇힌 市勢로서亦是큰市勢는아니어딘모양이다 維株도 大體陷上이 一巡되엇스니 一息의順序이오 市勢는 이미지레閉幕된것이오 이번에는 年末高나 期待할수밧게다 그럼으로 昨今은 小市勢圈內에서離脫키 어려울고 잘못하다가는 秋高失望의 不勢가 잇슬지도 모른다고 冷靜한 觀察을 하는사람이잇섯다

經濟界消息

○貿易協會理事會=朝鮮貿易協會에서는 三十一日 午後一時부터 理事會를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附議하게 되엇다
一、貿易座談會開催의件
二、朝鮮米宣傳施設에關한件
三、第六回 滿洲見本市參加의件

○朝石元山工場=朝鮮石油元山工場은 九月中旬까지에 敷地의 整地를 完了함으로 九月下旬 頃起工하기로 決定하얏는데 機械其他의 設備一切의 注文을 發하얏슴으로 年內에 工場外廓과 一萬五千噸 貯油탕크의 建設을 볼 模樣이다

○東拓鑛業事務所=東拓鑛業의 無煙炭合同의 成立과 同時에 平壤에 預置하는 事務所를 閉鎖하고 京城의 東拓支社로 撤回하기로되어 近近 高橋取締役支配人이 京城에 着任할터이다

○在東京朝鮮商工協聯合會創立=【東京特信】東京에 在留하는 同胞로 商工業界에 活躍하고잇는有志들로서 在東京朝鮮人商工業者의 統一機關을 만들고저 얼마전부터 商工業者有志間에 努力中이든바 지난六月五日에 東京神田 YMCA에서發起會를 開催하고 다시 지난八月十五日에 創立總會를 開催하고 完全히 在東京朝鮮商工協會는創立되엿는데 同會創立에對한 趣意와部署와 任員은 如左하다하며 一般業界는勿論在留同胞社會에 關心處가될만잔事實로 그動向을注視케되엿다한다

在東京朝鮮商工協會任員 理事長朱泰道 庶務部長理事朴萬浩 財政部長理事尹權 部長理事會金沐江 事業部長李文鉉 通商部長 欠員 監事方圓 李昌麟 相談役 金東進 申浩均 趙漢用 金浩永

○西岡氏講演會=日本照明界의泰斗 東京電氣會社 西岡俊雄氏來京을 機會로 京城商議主催 京電後援下에 來九月四日 午後二時부터 京城商議第一會議室에서 一般照明에關한 講演會를 開催하기로되엇다한다

今日財界 (卅一日)

◆米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白三等米 一石 [illegible]
正租(仁川)取引 [illegible]
一斤價在米 [illegible]
◆市中金融
一等 [illegible]
◆株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棉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고무現 [illegible]

建株中拂込과合併

◆朝鮮殖産銀行新株는 九月十六日十二圓五十錢 拂込徵收임으로 同株에對하야 제左取扱한 長期取引은 十月限부터 三十七圓五十錢 拂込으로서 賣買하고 九月限受渡는 九月十五日로 繰上함 短期取引은 九月十六日부터 三十七圓五十錢 拂込으로 賣買함
◆朝鮮無煙炭株式會社는九月一日 平壤無煙炭株式會社를 合併하야(合併比率는)로 資本二千萬圓이되고 合併에依하야 二十五圓拂込株式二十萬株를 發行함
◆倉敷紡績株式會社는 十一月二十六日中國쪽은株式會社를 合併하야 資本金五千萬圓이되다 合併에依하야 十二圓五十錢拂込株式四十萬株發行함

大阪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高
日產	三七	五五	五七七〇
東新	四六	四六	八〇三九〇
大新	一七	六三	八〇三四〇

實物前場取引

實賣買高二百枚

▲大同電力 [illegible] ▲同新 [illegible] ▲에타파이新 [illegible] ▲櫻田機械 [illegible] ▲帝火 [illegible] ▲昭和肥料 [illegible] ▲電話新 [illegible] ▲月島機械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電通東京電話】休日을 압두고 金利軟保合으로 人氣恢復되고內國債五分利物一齊五錢高인 一方外債佛貨도 十錢高 米貨三、四十錢上進이엇다

期米 納會

强硬裡에

前場小高 昨後場 阪地三十圓七十七錢止와共히 二十八圓三十一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 三十圓九十九錢인 二十二錢高를 擬하고 二十八圓四十五錢인 十四丁입으로 十一限이 또 大下鞘로 發會되다음 十九丁의 大下鞘로 米建의 最初限米로서 旣히百三十限과 十一限은 同一한 新米時代의 쌀임으로 그限鞘가 그러나 客月에發會된 十限이 新米 라고 一般은 豫想하고잇다 그러나 期米의 綿高로 市場人氣去益頑强이나 買方 不氣乘으로 場面은 一息商狀을呈한㊀三等三十一圓丁 四等三十圓八十錢 一等白米 十三圓二十五錢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二六五

新甫發會豫想

又復大下鞘?

一休後 九月二日에 發會될 新甫十一限은 新米時代의 氣分으로 적어도 百丁下鞘는 될것이라고 一般은 豫想하고잇다 그러나 客月에發會된 十限이 新米

當地依然伸悩

地場의絕對賣로

今回 日本內地의 風評한 說風이 一週한後 田中貞一派의 買方은 又一層 當限에서 連日買進하는事態로 阪地市勢는 今朝三十圓九十九錢의 快飛的高價를 示함에도 當地는 겨우 十五丁反發에 止함으로 依然 伸悩狀態를 呈함이다 要하면 當地도 地場側이 實賣成을하고 當地 金融側의 實物이 또한 頻集 라 東京山種一派가 當地 太店을 本營으로하야 一萬五千餘石의 實物을 注하엿고 大阪 某有力側의 實物이 또한 頻集하야 絕對 威力을 加하고 잇슴으로 當地 單獨의 賣建을 維持하고잇다 果然 中限에 入하야 어떠한 結果를招來할지는不 明이나 畢竟은 訂正市勢가 展開 되겟슬 豫期할수잇다 朝鮮의 稻作은 平年作이라할수잇스나 日本內地米作은 平年作도 못될傾向이 多함으로 結局 그影響이업지안흘모양인바 果如何?

各地新甫觀測

各地新甫觀測豫想?

各地期米新甫는 如左히大下鞘豫想이라한다
▲大阪과名古屋、京都는 一圓으로一圓二十錢의 下鞘、東京一圓五十錢、兵庫와 群山 一圓乃至一圓三十錢、下關과 熊本과木浦와大邱는一圓、金澤은五、六十錢、仁川과 釜山은七、八十錢의 各下鞘豫想이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賣方 地場利喰朝鮮側 派東京側 ▲買方 小口側來客側 田中貞

各地正米

京城同調

定期는 高放富演하얏스나 賣方이來月待로 取引閑散인 丸仁三等三十一圓丁 四等三十圓八十錢 一等白米二十一圓五十錢

仁川一息

期米의 綿高로 市場人氣去益頑强이나 買方 不氣乘으로 場面은 一息商狀을呈한㊀三等三十一圓丁 四等三十圓八十錢 一等白米 十三圓二十五錢

釜山不變

定期續騰이나 移出商買皆無로 高價賣가업서 小口賣然閑散이며 四八六叺의 行이잇섯다 ㊂三等三十圓八十錢

群山保合

淸算이 續騰임을 반키어 日本內地賣行不活潑로 高價買는 渡滯되고 一般으로 越月待의 人氣이 ㊂三等三十圓七十錢 四等三十圓五十錢 一等白米十三圓六十錢

木浦同調

期米高普天고로 賣方이不賣不買의 商狀을不敗하고 閑散裡에 保合인㊂多歷三十一圓八十錢 四等三十一圓六十錢 雄町三等三十二圓三十錢 四等三十圓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大邱閑散

需給不活의 現實化와 產地의 籾米不足去益深刻으로 持米側賣惜이오 商況停頓狀態인 ㊂三等二十九圓七十錢 四等二十九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三十錢

西浦不動

休日을 압두고 地方向 買氣가 잇스나 所持의 賣惜으로 無取引에 終하얏다 ㊂鶴屋三等 三十圓丁 四等二十九圓八十錢 一等白米 十三圓五十錢

金融 卅一日

◆海外經濟
◆日本銀行券
◆朝鮮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illegible]

米穀 卅一日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卅一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綿布
◆日本麥粉市勢
◆시카고期麥
◆鋼油沖價
◆豆粕沖價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卅一日

◆朝取短期
◆賣定 代引 日步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illegible] 累計 [illegible]
◆東京現株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illegible]

期米 卅一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朝鮮各地期米
◆大阪期米
◆大阪市中在米高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商品 卅一日

◆大阪綿糸
◆太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